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정은규 자서전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정은규 자서전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은규 자서전



ISBN 979-11-85641-50-8  
03230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은규 자서전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정은규 자서전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정은규 자서전







## 목차

추천사	8
머리말	12
1장 어머니의 정원	18
2장 돼지가 새끼를 낳은 날	34
3장 아버지는 죽어도 자식은 자란다	48
4장 7남매 모두 신부, 수녀가 돼도 좋다	62
5장 로마의 희로애락	70
6장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82
7장 가톨릭 신학 잡지의 첫 장을 열다	94
8장 주교직을 거절한 건 정 신부가 처음이오	106
9장 이 땅에 빛을	120
10장 교황청립 한인신학원 문을 열다	140
11장 나눔과 사랑	152

## 부록

내 삶, 신앙의 뿌리	170
선대가 뿌린 씨앗	177
영원한 라이벌, 전석재 몬시뇰과 정행만 신부	180
한국 천주교회의 두 날개, 김수환 추기경과 김남수 주교	186
왜관성당 신자들의 축사	190
사제교양지 ‘사목(司牧)’ 창간사	193
神學雜誌 展望 創刊辭	1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창간사	199
정은규 몬시뇰에 대하여 - 박정일 주교	202
나의 유언	206

## 추천사

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가 사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나무는 자신의 나뭇잎과 나뭇가지, 그리고 줄기를 주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온 소년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나무는 자신의 밑동까지 내어 주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정은규 몬시뇰님의 일생을 정리한 자서전에 추천사를 부탁 받고 문득 쉐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정은규 몬시뇰님은 1960년 로마 우르바노신학원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한국주교회의 사무총장,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 교황청립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 등 한국천주교회와 로마 교황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사제로서 주어진 사명에 평생을 오롯이 헌신하였습니다.

2004년 은퇴 후 로마에서 귀국한 그는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을 위한 ‘시몬장학회’ 설립, 교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정행돈교육상’ 제정,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정재문사회복지상’을 제정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은규 몬시뇰님의 나눔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아프리카 최빈곤 국가인 모잠비크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선친인 애국지사 정행돈장학기금 20억원, 2023년 시몬장학기금 20억원 기탁으로 매년 최소 100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은규 몬시뇰님의 이름 앞에 기꺼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은규 몬시뇰님과 저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인연은 선친인 정행돈 선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효성여대를 설립한 전석재 몬시뇰이 정행돈 선생을 찾아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경제적, 인적 지원을 받은 인연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세워진 정행돈 선생 부부의 흉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인연이 대를 이어 이렇게 정은규 몬시뇰님의 삶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고, 여기에 이렇게 한 장의 추천사를 더하게 돼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은규 몬시뇰님의 삶이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넉넉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몬시뇰님의 바람처럼 온 세상이 그 나눔으로 더욱 넉넉해지길 기도해 봅니다.

끝으로 정은규 몬시뇰님의 건강과 영혼의 평안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성한기

## 머리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내게 자서전 집필을 권하기에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더니 학생들과 대학에 도움이 된다면서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기에 많이 고민한 끝에 동의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착잡하다. 나는 자서전을 낼 만한 위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거절했지만,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만 수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책을 출판하는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간단히 쓰려고 한다.

내가 잘 아는 어느 스님은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 저서의 출판을 금했다는데 구순이 지난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그는 뭐라고 할까? 노망했거나 덕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나무랄 것 같다.

나는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되 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작은 자 연석에다 “여기 한 줌 티끌(혹은 먼지)이 묻혔다.”고 새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내가 속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별난 짓 한다고 무

시해버리고 다른 신부들처럼 잘 다듬은 화장석 판에 이름과 생몰일, 그리고 서품일과 사진을 새겨 무덤 위에 덮어 줄 것이다. 세상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튼 앞만 바라보고 바쁘게 달려온 내 일생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는 될 것 같다.

2019년 10월 28일, 나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인지기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 교구청에 제출했다. 하느님께 불충하고 설사 내 뜻이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잘못된 데 대하여 용서를 청했다. 내 장례는 극히 간소하게 치르게 해달라고 했다. 내 부모님께서 하셨듯이 나도 수의를 만들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두고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일러두었다. 몸이 더 악화되면 동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기로 교섭해 두었다.

2022년 신장과 방광 사이의 요로가 상했기 때문에 국소마취 상태에서 한 번, 전신 마취 상태에서 두 번 수술을 받았다. 금년까지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회복되어 이 글을 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더 주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 두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의 부모님 무덤에 참배한 지 오래다. 나는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 못하고 아기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잔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돌이켜 보니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 절반을 외국에서 고생하며 살았다. 그러나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저 앞만 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

아버지께서 대구형무소에 계실 때 쓰신 노트에는 사도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말을 되풀이 하고 싶지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내 부모님과 내 형제 4명의 흉상을 대학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세우고 이 책까지 출판해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감사하며 이 책을 끝까지 읽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정은규



어  
머  
니  
의  
정  
원



“은규야, 아버지 보러 가자.”

뚝바(두툽한 겨울 외투의 경상도 사투리) 앞섶을 단단히 여며주는 어머니의 미소에 언뜻 그늘이 스쳤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 갇혔다는 사실 정도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형무소에 갇힌 후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맘대로 어울려 놀지도 못했다. 할아버지의 엄명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한 후 어머니와 나는 집을 나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골목엔 친구들 몇이 곧은 손을 호호 불며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걸눈질로 그런 친구들의 모

숨을 부럽게 바라봤다. 어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손을 꼭 잡고 앞만 바라보며 무심히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벽돌로 지어진 대구형무소의 높은 담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목이 축 들어가고 몸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잡은 손을 꼭 쥐어주었다.

형무소 마당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죄수들이 대나무로 엮은 원통형 병거지를 머리에 쓰고 손은 밧줄로 묶인 채 굴비처럼 엮여 걸어가고 있었다. 형무소 안에서나 가까운 재판소에 갈 때도 사상범들은 그렇게 끌려다녔다. 어머니와 함께 면회를 올 때마다 보는 모습이었지만 볼 때마다 몸이 한껏 움츠러들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걸 쓰고 다닐 걸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도 한구석에 하나, 둘 상처가 쌓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용수’라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다른 죄수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기 위해 머리에 씌운 것이라고 했다.

“왔소? 우리 은규 마이 출었재?”

아버지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봤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했다.

“은규가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올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했다.

“다음엔 더 잘 해야지.”

무심한 아버지의 말에 나는 입을 쭉 내밀곤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아니 1등보다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수의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었다. 고개를 드니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와 함께 아버지 면회를 가는 것이 어머니에겐 유일한 낙이었다.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큰아버지와, 그런 형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 갇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늘 일본 순사의 감시 대상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런 환경에서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엉망이었다. 마당엔 집안 세간살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방이며 마루며 지저분한 신발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는 묵묵히 세간살이들을 정리하며 마루와 방을 닦았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세간살이들을 옮겼다. 마루를 닦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볼을 타고 흘렀다.

대충 집안 정리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해거름이 다 되었다. 담장 너머로 여기저기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오르고, 골목을 떠들썩하게 뛰놀던 아이들의 소리도 저 멀리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은규 오늘 고생했네. 엄마가 퍼뜩 맛있는 밥 지어 주께.”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허리를 펴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아이고, 저 집은 오늘도 저녁을 못 하나?”

혼잣말처럼 되뇌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고구마와 쌀을 조금 담은 바가지를 들고 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잠시 후 돌아온 어머니의 바가지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도 사라졌다.



정미소를 크게 하시는 할아버지는 왜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

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신흠집을 기와로 지어주셨다.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기와집이었다. 다른 집들은 전부 초가집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이면 집집마다 초가지붕의 빗짚을 새로 이어야 했는데, 어른들은 “왜놈들이 그나마 짚이라도 남겨두니 고맙다고 해야 되나?”라며 빈 하늘에 주먹질을 하곤 했다. 그나마 형편이 되는 집은 신문지로 벽을 발랐지만 그것도 어려운 집들은 흙벽을 그대로 두었다.

일제가 전선을 중국을 넘어 동남아로 확대하면서 수탈은 더 심해졌다. 쌀을 비롯해 잡곡까지, 손가락부터 낯그릇까지 공출하면서 조선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렇게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보릿고개는 일상처럼 되었다. 학교에 가면 신발도 없이 등교하는 친구들이 여럿이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그 속의 하얀 송기를 뜯어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초근목피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엄마, 애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학교에 와. 얼마나 지저분한지...”

왜관소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녁 밥상 앞에서 나는 투덜거렸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지 말라는 표정을 지었다. 곧장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애들이 맨발로 다니는 것이 누구 탓이냐? 그 애들 탓이냐? 아니면 그 부모들 탓이냐? 누구 탓이겠느냐.”

어린 마음에 특 내뺨은 말이었지만 얼마나 칠없는 소리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꾸지람 뒤에 못다 한 말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그런 내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의 공출과 수탈이 심해지면서 조선인들의 삶도 팍팍해졌다. 누구집 아들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등, 누구집 딸이 공장에 돈 벌러 갔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5, 6학년 상급반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거나, 목탄트럭 연료로 쓰이는 죽은 소나무 가지를 모으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나도 동원이 됐었는데 한번은 익숙하지 않은 낯질에 손이 베이기도 했다.

학교에선 강제로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했고,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을 강요했다. 물론 우리말을 쓰는 것도 금지였다. 혹여나 실수로라도 우리말을 쓰다 걸리면 일본 선생들에게 된통 혼이 났다.

아버지가 출소한 후에도 우리 집은 일본 순사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나마 나아진 것이 있다면 집밖으로 외출이 조금은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렇다고 마냥 자유롭게 나가 놀 수는 없었다.

“야, 이거 뭔데?”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물었다.

“어? 너거 집엔 이거 없나? 이거 집집마다 다 있는 건데?”

친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벽에 걸린 선반 위에는 가로 5cm, 세로 20cm 정도 되는 흰 종이에 뭐라고 쓰인 게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친구는 그것이 일본의 조상신인 천조대신의 신주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참배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내게 귓속말로 은밀하게 말했다.

“야, 아무개네 집엔 신사 모양이랑 똑같이 만든 신주도 있대이.”

아무개네 집은 소문난 친일파 집이었다. 친구는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구를 따라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한테 곧장 달려갔다. 그리곤 친구집에서 본 걸 이야기하며 우리 집엔 왜 없냐고 물었다. 엄마는 그런 나의 손을 이끌고 방으로 갔다. 엄마는 벽에 걸린 성모님 액자를 조심스레 벽에서 떼어냈다. 그러자 뒤에서 뭔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까 친구집에서 본 천조대신의 신주였다.

엄마와 신주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 하는 나에게 엄마는 싱긋 웃어 보였다. 이유를 알 순 없었지만 어린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있었다.



1943년, 어느 날 학교 운동장 한쪽이 고구마밭이 되어 있었다.



“시몬아!”

아직 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문을 열고 익숙한 할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깨웠다. 시몬은 나의 천주교 세례명이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돌아누웠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맡에 앉아 차가운 손을 이불 밑으로 쑥 밀어 넣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흰 수염의 할아버지는 장난스레 웃었다.



나는 소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아침 성당에 가서 미사 복사(服事, 미사를 지낼 때 사제를 도와 시중을 드는 아이)를 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우리 집에 들러 나를 데리고 성당에 가셨다.

미사 복사를 하는 것이 어린 내게는 고된 일이었다. 전날 밤 자정부터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말아야 하는 공심재를 지켜야 했고, 미사 때면 무거운 라틴어 경전을 좌우로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가끔

무거운 경전을 옮기다 떨어뜨려 미사가 끝난 후 프랑스인 신부의 꿀밤을 먹는 일도 더러 있었지만 그건 장난에 가까웠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는 역할이라지만 그 규율과 사명감이 지니는 무게감은 상당한 것이었고, 더욱이 파란 눈의 프랑스인 신부 앞에서 미사 의식을 실수 없이 보좌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에는 모든 국가에서 미사를 라틴어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당시 한국에서도 라틴어 미사를 드렸는데, 프랑스인 신부가 “도미누스 보비스쿰(Dominus vobiscum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선창하면 복사인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라틴어로 “엠틀 스피리투 투오(Et cum spiritu tuo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대답해야 했다. 그런 응송이 미사 중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것도 어린 내게는 힘든 일이었다. 물론 무사히 미사를 마친 후 느끼는 성취감은 어린 나이에 나를 뿌듯하게 했다.

미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선생은 한두 명만 빼곤 전부 일본인들이었고, 학교에선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가 형무소에 갇히고 난 뒤로는 친구들과 자치기 놀이도, 물놀이도 하지 못하고 늘 집에만 갇혀 있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이어졌다.

“아아!”

아버지는 형무소에서 얼마나 성서를 많이 읽으셨는지 신약성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다.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 미사에 참례하고 밤에는 온 가족이 모여 밤 기도를 했는데, 꾸벅꾸벅 졸던 내 머리 위로 아버지의 꿀밤이 떨어진 것이다. 나는 입을 삐죽이 내밀곤 빙긋이 웃고 있는 아버지를 쫓아봤다.

1941년 3월 7일, 3년이 넘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아버지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다. 풍성하던 머리숱은 다 빠지고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따스한 부정(父情)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 이어진 두터운 신앙심이 어린 시절부터 내게로 이어졌고, 부모님의 한없는 기도가 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탱해 준 것에 대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석방된 후 가족과 함께(1941)



1932년 10월 31일 나는 대구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한 달 만에 몸을 풀고 갓난 나를 안고 왜관 시택에 돌아오자 조부님은 너무 기뻐서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와 나를 받아 안았다고 한다. 조부님은 은규(銀圭)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조부님은 16세 때 영남지방의 첫 프랑스인 선교사 김보록 신부에게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경북 칠곡군 신동에서 정미업을 하시다가 1920년 왜관에서 남일정미소(南一精米所)를 크게 차리셨는데, 낙동강과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수완과 성실성으로 왜관 제일의 부자가 되셨다.

조부님은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불우이웃돕기에도 힘쓰셨다. 조부님에 대한 이야기는 책 뒤편 부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난 태어난 지 3일 만에 대구 주교좌성당에서 '시몬'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외가는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신자 이(李) 곤

자가 집안의 후손이다. 이분은 내 외조모의 외삼촌인데 속명을 버리고 세례명을 본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순교 기록에도 '이 곤자가'라고 되어 있다. 대구 감영 아전의 아들인데 천주교인 실학자들의 서적을 필사하다가 신자가 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선교만 하다가 1868년 서울 포도청에서 30세에 순교했다. 얼마나 신앙심이 두터웠던지 포졸들을 입교시키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다. 2018년 한국천주교회는 초창기 신자 133명을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했는데 그들 중에 이 곤자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나 역시 그런 신앙적 전통을 어려서부터 깊이 내재화할 수 있었다.

나의 유년기는 천주교라는 집안의 신앙적 전통과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은 독립운동을 하다 젊은 나이에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신 큰아버지와, 그런 형의 뒤를 이어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모진 옥살이를 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런 자식들의 뒤에서 남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대신 조부님의 삶으로 훗날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줬다.

일본 순사들의 감시로 집안 분위기는 늘 뭔가에 눌린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대구형무소에 갇히고 난 뒤로는 담장 밖으로 집안의 소리가 넘어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늘 정적이 흘렀다. 높은 담장을 세우면 이웃들에 위화감을 준다며 함석으로 대충 두른 것이 우리집 담장이었다.

어머니는 예쁜 꽃과 나무들로 마당 한쪽에 정원을 꾸미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 정원을 꾸미는 어머니의 정성은 대단했다. 이웃들은 그런 어머니가

만든 정원의 예쁜 꽃과 나무를 험령하게 벌어진 함석담장 사이로 보며 잠시 삶의 곤함을 잊기도 했다.

아버지는 무궁화꽃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마당 구석에 있는 화장실 옆에 몰래 흰 무궁화꽃을 심으셨다. 환하게 핀 무궁화꽃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요즘도 나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무성한 야산을 산책하다 우연히 활짝 꽃을 피운 무궁화를 보면 그 시절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돼지가 새끼를 낳은 날

+

“아니, 학교에서 뭘 하고 놀았길래 옷이 그 모양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날 보곤 엄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나는 말 없이 마당 한쪽에 있는 뽕뽕(펌프의 경상도 사투리)로 갔다. 뽕뽕에 물을 한 바가지 부은 후 손잡이를 아래 위로 저으면 앞쪽 주둥이로 물이 콧콧 쏟아졌다. 우리 마을에선 유일하게 우리집에만 뽕뽕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개울물을 퍼다 썼다.

“오늘은 산에서 소나무 가지 모으는 일 했어요.”

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소학교 5학년, 6학년 상급생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소위 각종 노력동원에 끌려다녀야 했다. 일제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징용과 징병이 많아졌고, 그만큼 농촌도, 도시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 같은 상급반 학생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돕거나 산에 가서 죽은 소나무 가지를 모아 목탄트럭의 연료로 보내는 일에 동원되었다.

“어푸푸푸, 어푸푸푸.”

웃도리를 벗고 엉덩이를 번쩍 든 채 바다에 엎드린 내 등에서부터 목덜미로 시원한 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뽀뽀에서 퍼 올린 시원한 물 한 바지를 내 등에 뿌리며 한 손으로 등 여기저기를 밀어줬다. 나는 엎드린 채 한 손을 들어 가슴이며 배를 닦았다.

등에 물을 뿌릴 때마다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시원한 비명이 쏟아졌다.



1945년 4월, 나는 경북중학교에 입학했다. 왜관에서 대구까지 통학할 수 없어 나는 외갓집에 기숙하며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일제에 의한 노력동원은 갈수록 심해졌다. 여전히 학교에선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다.

어떤 날은 동촌비행장에 가서 돌을 나르고, 어떤 날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어떤 날은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우리는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외갓집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마루에 걸터앉은 외삼촌은 망연자실한 낯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외숙모는 마당 한쪽 양지바른 곳에 놓인 장독대만 하염없이 닦고 또 닦으며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외사촌 누나가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는 내 손을 이끌고 집 뒤뜰로 갔다.

“현식 오빠가 동남아 전선에서 전사했단다.”

나는 뒤통수를 세계 맞은 듯 충격을 받아 “아!” 하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외사촌 누나의 맑은 눈이 금새 빨갛게 충혈 되더니 붉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누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4월 일제는 5년제이던 중학교 수업을 연한을 4년으로 낮추어 버렸다. 1년 일찍 졸업시켜 군대에 데려가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외사촌 형은 그렇게 강제로 징병이 되었고, 이름 모를 낯선 땅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았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중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맞는 방학을 왜관 집에서 느긋하게 보내고 있었다. 학교에 가서 근로보국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일하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다. 아버지는 소화여자학원 3대 원장이신 할아버지를 도와 교육사업에 힘을 쏟고 계셨는데, 여전히 일본 순사들은 그런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우와, 계란후라이!”

아침 밥상을 본 나는 소리를 질렀다. 동생들도 눈빛을 반짝이며 밥상 앞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그런 우리를 엄마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가 정원만큼이나 공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돼지우리와 닭장이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할아버지의 도움도 있었지만, 엄마는 억척스럽게 집안 살림을 독립적으로 꾸리려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돼지와 닭을 키우는 것이었다. 처음엔 돼지똥, 닭똥 냄새가 코를 찔러 기겁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닭장에서 방금 낳은 따끈따끈한 계란을 모아 시장 상인에게 넘기기도 했고, 운 좋은 날이면 오늘 처럼 아침 밥상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계란후라이를 올려주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엄마는 빙긋 웃으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아침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끝낸 엄마는 나와 동생들을 불렀다. 계란후라이로 기분이 좋아진 나는 뛰듯이 마당으로 나갔다. 엄마는 우리를 돼지우리로 데리고 갔다.

“우와~, 도대체 몇 마리에요?”

돼지우리 한쪽에 옆으로 누운 어미돼지 젖을 물고 분홍빛 새끼돼지들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얼추 열 마리는 돼 보였다. 엄마는 밤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낳았다며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엄마의 살림살이가 또 늘었다.

꼼지락거리는 새끼돼지들이 너무 귀여워 돼지똥 냄새도 잊고 한참을 돼지우리에 매달려 있었다.



점심 때가 됐는데도 아버지는 도통 밥을 드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다. 아까부터 계속 라디오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집앞 골목도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정오가 되자 마침내 라디오에서 뭔가 흘러나왔고, 구부정하게 앉아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허리가 곧추 세워졌다. 유심히 귀를 기울이던 아버지의 낮

빛이 점점 붉게 변해갔다.

학교에서 일본말을 배웠지만 워낙 어려운 말들이 ‘지직, 지지직’ 하는 라디오 소음과 섞여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라디오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던 아버지는 천천히 엄마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은 어느새 붉게 충혈돼 있었다.

“해방이다.”

아버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당으로 나간 엄마는 대문을 활짝 열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 일본 천황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합군에 대한 항복 선언을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소리쳐 외쳤다. 길바닥에 뿌려진 호외는 발길에 차일 정도였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일제 강점기 때 쓰던 돈도 그대로 통용되었고, 시장도 그대로 쪼그라들었지만 세상은 약탈과 방화, 파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혼란을 틈타 좀도둑들도 기승을 부렸다. 아버지는 칠곡치안유지회를 조직해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표를 하루라도 빨리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본인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동안 조선인들을 수탈해 쌓은 재산은 그대로 조선에 두고 가야 했다. 미군정청은 귀국하는 일본인들에게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짐과 돈 1천 원만 소지하도록 훈령을 내렸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온 학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학을 가르치는 오용진 선생과 물리를 가르치는 조귀순 선생을 빼곤 전부 일본인 교사였는데, 일본의 항복 선언 후 일본인 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기 바빴다. 당연히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물리를 가르치던 선생이 어느 날부터 단군신화로 시작되는 국사를 가르쳤고, 국어는 시골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노인 윤창두 선생을 불러서 가르치게 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일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급하게 불러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했다.

문: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극단은 어디입니까?

답: 반도에서는 극동은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극남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이요, 도서를 넣어서는 극동은 경상북도 울릉도 죽도,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 극남은 제주도 대정면 마라도, 극북은 함경북도 은성군 유포면입니다.

한글로 된 교과서나 참고서 하나 없던 시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가 나중에 친일로 변절한 최남선 씨가 쓴 ‘조선상식문답’이란 책으로 역사며 지리 수업을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일 교실에서 이어졌다. 선생이 칠판에 쪽 쓰면 우리는 또 그걸 수첩에 베껴 썼다.

그나마 등사물이라도 나눠주면 그걸 교과서 삼아 공부했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헌 일본책을 구해 자습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학교도, 세상도 혼란에서 벗어나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교실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한 친구를 빙 둘러싼 채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다. 교실 입구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몰려와 키득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뭘데? 무슨 일이고?”

친구들을 비집고 들어가니 한 친구가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 채 책상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동기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친구가 놀림을 주도하고 있었다. 함께 둘러선 친구들은 책상을 치고 배꼽을 잡으며 웃었고, 그럴수록 숫기 없는 어린 새신랑은 벌겍게 달아오른 얼굴을 책상에 깊이 파묻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조흔의 관습이 남아있던 때라 한 학년에 한둘은

장가를 간 경우가 허다했다. 어떤 친구들은 끝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었다.



해방 후 처음 맞이하는 봄이 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열자(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학교는 휴학에 들어갔다.

“겁내지 말고 다음과 같이 호열자를 방지하자. 파리를 죽이자. 파리채와 파리약으로. 음식물은 반드시 뚜껑을 덮어 파리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자. 소독하지 않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자. 음식 먹기 전과 대변 본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자. 난데없는 살인자가 되지 말고, 제각기 방역 규칙을 지켜 동족에게 균을 전염시키지 말자. 이웃이나 가족 중에 설사하고 토하는 사람은 주저치 말고 당국에 신고하자. 호열자는 결국 부주의한 사람에게만 전파하게 된다.”

한산한 거리에 미군정에서 만들어 배포한 ‘호열자 예방’ 전단지까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신문에선 귀환 동포 3천여 명을 싣고 중국 상하이에서 온 수송선에 콜레라가 퍼져 2명이 사망했고, 미군이 이들을 1주일간 격리 소독했으며, 감염자 시신은 부산 앞바다에 수장했는데, 이 경솔한 조치가 콜레라 창궐의 원인이라고 했다.

## ‘40호 부락이 전멸 상태’ - 영남일보, 1946년 8월 4일

여름이 되면서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섬뜩한 뉴스가 연일 신문 지상을 채웠고, 확인되지 않은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미군정은 호열자 확산을 막는다면서 경북지역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 대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봉쇄됐다. 식량 등 물자마저 끊기게 되면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나마 형편이 좋은 집에선 콩나물 갱죽을 먹는 정도였다.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군정청은 각성하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떡여놓고 정치해라!”

1946년 10월 1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시위는 급격히 폭력화되었다. 미군정은 10월 2일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호열자만큼 흉흉한 소문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까지 돌았다. 아버지는 저녁상에 올라온 콩나물 갱죽을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시다 무겁게 수저를 들었다.



나는 해방 넉 달 전 경북중학교에 입학했다. 1911년 8월 일제가 공포한 조선교육령에 의해 세워진 중등교육기관 대구고보는 서울의 경기고보, 평양의 평양고보에 이어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문을 연 고보였다. 그래서 대구고보 교모와 교복 소매에는 세 개의 흰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요즘이야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걸 유학이라 하지만 당시만 해도 왜관에서 대구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유학이라고 했다. 실제로 왜관에서 대구로 유학 가는 학생도 몇 명 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3대 명문으로 꼽혔던 대구고보의 후신이었던 경북중고등학교 진학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실제로 경기고보, 평양고보, 대구고보 등은 일제가 조선 학생들을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거점 역할을 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 그들이 원하는 친일파로 키워, 조선에서 그들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8년 3차 교육령으로 조선의 고보를 모두 중학으로 전환하면서 대구고

보는 경북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3년제 경북중, 경북고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해방이 불과 몇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우리로선 곧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었다. 여전히 학교에 가도 수업보단 거의 매일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은 피어났다. 당시만 해도 아직 조혼의 관습이 남아있어 동기생들 중에서도 결혼한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소문으로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놀림만 아니라, 그 시절 사춘기 소년들의 호기심이 발동해 이것저것 짓궂은 질문을 하며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식민지 소년들의 봄이 지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사회는 커다란 혼란 속에 빠졌다. 치안 공백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만큼 민중들의 삶은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 사회적으로 좌우 이념대립이 격화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가 벌어졌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 교사들이 한꺼번에 빠진 자리를 채울 교사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시골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할아버지가 국어 선생으로 오는가 하면, 물리를 가르치던 선생이 역사를 가르쳤다. 한글로 된 변변한 교과서 하나 없이 선생들이 나눠주는 등사물로 수업을 했고,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면 선생들이 칠판에 쓴 걸 수첩에 받아 적어야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해방 이듬해 콜레라의 창궐은 세상을 더 큰 혼란 속으

로 빠뜨렸다. 대구·경북은 콜레라의 직격탄을 맞았다. 식민지 경찰의 치안은 거의 공백 상태였고, 일본 당국이 한꺼번에 떠난 뒤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남은 것이 없었다. 미군정에서 공급해주는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해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식구 중에서 호열자 환자가 나오면 비정하게 가족을 버리는 일도 잦았다. 당시 대구·경북에서만 5,348명이 콜레라에 걸렸고 4,332명이 숨졌다는 기록이 있다.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로 오는 모든 길을 봉쇄한 미군정의 조치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성난 민심은 9월 총파업과 대구철도파업에 가세하며 지역은 분노로 들끓었고, 1946년 10월 1일, '대구 10.1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사망했고 민심은 견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다.

미군정이 10월 2일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구 시내의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대중들의 시위는 경산·성주·영천 등 경상북도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대구·경북에서만 경찰관 60명, 민간인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6천여 명의 피검자, 1,500여 명의 수감자를 낸 이 사건을 계기로 남한 전역이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아  
버  
지  
는  
죽  
어  
도  
자  
식  
은  
자  
란  
다



호열자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1 사건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해방된 조선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언제부턴가 왜관 유지들이 우리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제헌국회 의원 출마를 권유했다.

“정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누구보다 명분도 있고 출마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지할 겁니다.”

묵묵히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주변의 출마 제의를 사양했고, 지역의 치안 유지와 안정을 위해 칠곡군 치안유지회를 조직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가 실시됐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초대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에 선출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 북한에서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남과 북에는 별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은 고착되었고, 그렇게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었다.



“오빠, 내 손 봐라. 엄마가 해줬다.”

여동생 죽규가 주홍빛 물이 곱게 든 손톱을 내밀며 자랑하듯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앙증맞은 동생의 손톱에 곱게 봉숭아물이 들었다. 아침나절 한참을 실로 꿰꿍 묶어 연신 입바람을 호호 불며 공을 들인

보람이 있었다.

봄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쁘게 봉숭아물을 들었다.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1년 내내 공을 들었다. 오빠의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였는지, 여동생은 마루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아버지 앞으로 손을 쭉 내밀었다.

“아이고, 올해는 색깔이 더 이쁘게 들었네.”

아버지는 동생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제야 동생은 만족한 듯 활짝 웃으며 나를 돌아보곤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버지는 순심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추대돼 학교 설립 기성회의 모든 사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아버지는 토지 4,833평을 기부해 1947년 문교부 교육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규는 졸업하면 뭐하고 싶노?”

서류를 뒤적이시던 아버지가 불쑥 물었다. 나는 발끝만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 졸업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혼란한 세상만큼 내 스스로의 앞날에 대한 계획도 막막하기만 했다.

“천천히 생각하렴.”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아버지는 내 등을 툭 치고는 서류를 챙겨 마당을 나섰다. 벌겋게 녹이 쓴 함석담장 아래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어머니는 오늘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동생은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따라 흥얼거리며 봉숭아 물든 손톱을 행복에 겨워 보고 또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했다. 3일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됐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압도적인 북한군의 무력 앞에 국군의 육탄 저항은 종잇장처럼 흩어졌다. 전쟁 발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군은 경상도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을 점령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한 달 전에 태어난 남동생에게 젖을 먹이며 말없이 고개를 들어 천정을 바라봤다.

다음날 나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대구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학도의용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는 벌써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양했다.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왜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신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다.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작전 수행과 총기류를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몇 번의 항의 끝에 결국 돌아서는 내 어깨를 누군가가 잡았다. 친구 송영표였다.

“은규야, 내가 니 뭇까지 내가 더 잘 싸우고 오께.”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내 처지가 슬픈 것인지, 이제 곧 전장으로 떠날 친구와의 작별이 슬픈 것인지, 복잡한 감정이 나를 오래도록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왜관은 벌써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되어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과 치열한 대치를 하고 있었다.

“오후 6시까지 지시된 지역에서 퇴거하지 않는 주민은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한다.”

8월 3일 왜관읍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아침부터 경찰서 사 이렌이 울리고 전단과 확성기로 포고 내용이 전달되었다. 집집마다 황망히 피난 짐을 싸다.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1일 순심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아버지는 학교의 중요한 문서와 도서들을 사과 께짝에 담아 가실 과수원 창고에 숨겼고, 일부는 성당 마룻장을 뜯어 땅속에 묻었다. 집에선 어머니가 피난 갈 채비를 끝내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학교 정리를 끝낸 아버지는 점심때를 훌쩍 지나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침부터 피난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왜관역에 대기하고 있던 무개화차는 터질 듯 만원이 된 채 일찌감치 역을 떠났고, 우리처럼 늦은 피난 행렬이 철길 좌우로 장사진을 이뤘다.

남동생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남동생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대구까지 가야 했다. 김천-대구 간 4번 국도를 잇는 유일한 왜관인도교에는 수많은 피난민과 이를 통제하는 군인들로 북새통이었다.

북한군의 도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왜관인도교로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통제하려 했으나, 죽기 살기로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군인들의 사격에도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은규야, 동생들이랑 엄마,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

생후 한 달 된 남동생은 이런 북새통에도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

들어 있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우리 가족은 대구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어느새 날은 저물었고 잠에서 깬 남동생이 엄마 젖을 보채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어머니의 젖을 문 채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쿠쿠쿵, 와광!”

순간 저 멀리서 땅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어두운 밤하늘로 높은 불길기 치솟았다. 저녁 8시 30분, 국군은 북한군의 도강을 막기 위해 왜관인도교를 폭파했다.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과 한국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며 북한군의 후퇴가 시작됐다.

10월 1일 복귀령이 떨어졌고, 우리는 두 달간의 대구 피난 생활을 접고 고향 왜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왜관은 읍내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아버지가 교장으로 계시는 순심중학교도 폭탄과 총탄 세례를 받아 처참히 파괴돼 있었다.

다행히 우리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집안 세간살이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나마 집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남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혀 곤히 잠들

어 있었다.

나와 동생들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급히 학교로 달려가셨다.



1951년 3월, 졸업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졸업식도 졸업장도, 친구도 없이 맞은 졸업이었다. 우리 앞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어둡고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열자 창궐과 10.1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전쟁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경북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학도의용군에 지원했으나 신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당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나와 경북중학교 동기인 32회부터 34회 학생들을 비롯해 대구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도의용군에 지원했는데, 우리 동기생들 20여 명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영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송영표, 행방불명이 된 이윤근 등이 포함돼 있다. 외사촌 형 최무식은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국군으로 참전해 북한에서 전사했다.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고, 조국을 위해 장렬히 푸른 목숨을 바쳤다.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죽음을 잊을 수 없다.

훗날 역사적 기록과 증언들로 다시 마주한 피난길의 고단함과 아픔 역시 잊을 수 없다. 북한군의 도강을 막기 위해 왜관인도교를 폭파했을 때, 건너편

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있었다.

바로 등 뒤에는 북한군이 밀려오고 앞에는 건널 다리가 끊어진 피난민들은 막다른 상황에서 수심이 얇은 곳을 찾아 강을 건넜다. 정신없이 강을 건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익사한 것을 알고 울부짖는 어머니, 세찬 물살에 놓쳐버린 노모를 목 놓아 부르는 아들, 가족과 생이별한 이들의 울음이 낙동강변을 가득 채웠다. 아비규환의 풍경이 따로 없었다.

두 달 간의 대구 피난 생활에서 돌아온 왜관은 처참한 몰골로 우리를 맞았다. 당시 왜관읍 2,456호 중 1,889호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도로변에는 찌그러진 전차의 잔해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가는 곳마다 밟히는 각종 탄피와 함께 주인도 없이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에는 인민군 시체들이 즐비했고, 시체 위로 뒹뒹 날아다니는 쇠파리떼와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가득했다.

아버지가 교장으로 계셨던 순심중학교는 전란의 와중에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태반이 돌아오지 않았다. 피난 전에 400명이던 학생들이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피난 가기 전 숨겨 두었던 학교 서류들을 찾아와 다시 정리하고, 몇 명 안 되는 교직원들과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깨진 유리창은 송판으로 막고, 찌그러진 책걸상을 다시 꿰맸다. 그렇게 학교를 다시 정비하며 학생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당시의 상황을 정하중 서무과장은 당직일지에 이렇게 기록해 뒀다.

‘지난 8월 3일 소개(疏開)령으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학교를 뒤로 두

고 모든 직원들은 뿔뿔이 해산된 채 남으로 남으로 피난길을 떠났더니 2개월 만인 오늘 전황(戰況)의 호전으로 다시 우리 학교를 찾게 되어 감개무량한 심회를 표현할 길이 없도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파괴의 참상을 목도하는 쓰라린 심정! 복구의 길! 재생의 힘! 어디서 다시 우리 순심중학교의 옛 모습을 찾아 얻을 소냐! 오호라 민족의 비극, 전란의 참화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비롯한 순심중학교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학교는 차차 질서를 회복하게 됐다. 복귀하지 못했던 교직원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학생들도 하나, 둘 학교로 돌아왔다. 그렇게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공납금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공납금을 독촉할 사정도 못되었고, 그러다보니 교직원들의 급여인들 제대로 지급할 형편이 못되었다.

“아버지는 죽어도 자식은 자란다.”

아버지의 굳은 의지는 학교를 점차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전쟁의 와중인 1951년 7월 14일, 순심중학교 제3회 졸업식을 치르며 42명의 남자, 19명의 여자졸업생을 배출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왜관 사가지(1950)

7  
남  
매  
모  
두  
신  
부  
·  
수  
녀  
가  
돼  
도  
좋  
다



전쟁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친한 친구들의 죽음과 행방불명,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젊은 영혼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지만, 학생들도 수업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제대로 된 교재도 없었다. 무엇보다 전쟁 중이라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왜관 중심지에 있던 할아버지의 큰 저택은 왜관 전투 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집을 할아버지께 내 드리고 우리는 왜관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가실 과수원에 가서 살고 있었다.

나는 가실에 있는 우리집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소일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부모님도 그런 내게 대학 생활에 대해

뭐라 간섭하지 않으셨다.

“은규야, 상주 삼촌한테 가서 지내보는 게 어떠냐?”

가지치기를 하던 손길을 잠시 멈춘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막내 삼촌은 상주 서문동 성당 주임으로 계신 정행만 신부였다.

당시만 해도 천주교 신부는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지극한 존대를 받고 있었다. 우리 집안에서는 조부모님을 비롯, 모든 삼촌들이 막내 동생인 신부에게 존칭을 쓰고 존대를 했다.

+

상주에서 나는 삼촌을 도와 성당 일을 보며 지냈다. 자연스레 신자들 과도 교류하며 하루하루 나도 모르는 새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까이 했기에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

“아버지, 어머니.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상주에서 돌아온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오랜 고민의 결과였

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서로 바라보더니 내 손을 꼬옥 잡으시며 말했다.

“사실은 믿어인 너를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단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부모님은 내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한 번도 겉으로 내색을 하진 않았으나 아들이 신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을 부모님의 마음이 마주 잡은 손으로 전해졌다.

+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섰다.

“아이고,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내 많이 섭섭하겠다.”

골목에서 마주친 어르신은 부모님을 위로하며 말을 건넸다.

“7남매 모두 신부, 수녀가 돼도 좋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을 어르신은 “허허, 은규야, 잘 다녀 오너라.” 내 어깨를 다독였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부모님과 골목을 나섰다.

나는 삼촌의 소개장을 들고 대구교구장 최덕홍 주교를 찾아갔다.



최덕홍 주교의 소개로 임시 신학교에 입학한 나는 소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별과에 편입되어 라틴어와 기초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전쟁통에 부산 영도에 임시로 신학교를 옮겨왔는데, 신학교라고 해봐야 20여 명이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는 판잣집 세 동이 전부였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세숫대야를 여기저기 받쳐놓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정은규 학생, 축하해요.”

신학교 교장 신부가 나를 따로 불러 축하를 해줬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로마 교황청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장학생 몇 명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최덕홍 주교의 추천으로 로마 유학 장학생에 뽑혔다는 것이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 나는 로마 유학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교황청에서 보낸

비행기 티켓이 집으로 도착했다. 그해 11월 여권이 나왔다.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는데, 실수 없도록 늘 조심해라.”

출국에 앞서 인사를 간 내게 하신 할아버지의 당부 말씀이었다.



1953년 12월 1일, 나는 부산 수영공항에서 승객 20여 명과 함께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4발 프로펠러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쿄 제국호텔에서 2박을 하는 동안 나는 서점에 들러 일본어로 된 이탈리아어 사전을 구입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동집에 들러 값싼 우동을 맛있게 사 먹기도 했다. 소학교에서 배운 일본어 실력이 그나마 도움이 되었다.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호텔 식당 종업원이 물었다. 난생 처음 양식을 접한 나와 일행은 적잖이 당황했다. 메뉴라고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 뭘 주문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데, 일행이 맨 위에 것을 주문하자고 해 그렇게 했다. 잠시 후 우리 앞에 떨어진 수프가 나왔다. 살짝 당황한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걸 주문했다. 잠시 후 우리 앞엔 또 다른 수프가 나왔다.

결국 의논 끝에 맨 아래에 있는 메뉴를 다시 시켰는데, 이번엔 우리 앞에 아이스크림 디저트가 놓여졌다. 종업원은 멋쩍어하는 우리를 보며 씩긋 웃더니 인사를 하곤 돌아갔다. 종업원이 돌아가자 우리는 참았던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그렇게 킥킥 웃으며 뜻하지 않게 간단한 식사를 마쳤다.



도쿄에서 스칸디나비아 사스 항공사의 4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갈아타고 사이공, 카라치, 카이로를 경유해 로마에 도착했다.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긴 여정에 난 녹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인천 부두에서 작은 배를 타고 상하이에 가서, 거기서 다시 큰 배로 갈아타서, 한 달 이상 걸려 왔다네.”

5년 전에 유학 온 선배가 그런 나에게 자신들에 비하면 그나마 호강한 것이라며 웃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집안의 종교적 전통은 혼란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나를 자연스레 종교인의 삶으로 이끌었다.

해방 후의 혼란과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며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불안과 허무가 나를 지배했다. 그런 나를 부모님은 상주에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삼촌에게 보냈고, 그것은 아들이 신부가 되길 바랐던 부모님의 오랜 바람으로 날 이끈 것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은 점차 치유가 되었고, 성직자로 살아가는 삼촌의 삶은 내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신부가 되고자 하는 나의 결정에 부모님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며 환영했다. 맏아들을 신학교에 보내 섭섭하겠다는 이웃의 말에 “7남매가 모두 신부, 수녀가 돼도 좋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했다. 오히려 내 결정을 고마워 하셨다. 나는 그렇게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성직자로서의 삶 속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로  
마  
의  
희  
로  
애  
락



공항에는 교황청립 우르바노신학원(Pontificio Collegio Urbano)에 다니고 있는 선배 유학생이 나와 있었다. 선배는 나를 이끌고 시내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안내했다.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예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웅장한 성인들의 조각상과 화려한 천정과 벽화에 넋을 놓고 있는 내게 선배가 살짝 귀땀하듯 속삭였다.

“저 벽화들은 그림이 아니라, 돌로 하나하나 짜 맞춘 모자이크라네.”

신배를 따라 돛 아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정말 하나 하나 돌로 짜 맞춘 모자이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손길이 성당의 신성함을 덧입히고 있었다. 돛 꼭대기에 위치한 쿠폴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성전 광장과 로마 전경은 오랜 비행의 피로를 싹 잊게 했다.



신학원의 일상은 비교적 단조로웠다. 아침 6시면 기상해 개인 목상을 하고, 7시에 미사를 했다. 8시에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교황청립 우르바노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시에스타라고 해서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시에스타는 로마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이기도 했다. 상점이고 관공서고 무조건 시에스타를 한다고 해서 처음엔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의심하기도 했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신학원으로 돌아와 운동이나 산책을 했고, 저녁 식사 전에 성당에서 단체로 묵주 기도를 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취침을 하거나 신학원 내에서 자유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36년을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였으면 좋았을 것 같애.”

신학원 동기 하나가 우스개를 했다. 신학원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들 나라 출신들은 영어나 프랑스어가 유창했다. 동기의 말은 이탈리아어 계통과 비슷해 쉽게 언어 문제를 극복하는 그들이 부러워 던진 우스개였다.

언어가 서툴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 세탁 담당 수녀에게 한 번은 셔츠가 없어서 ‘말리아(maglia, 셔츠)’라고 해야 하는데 발음이 비슷한 ‘몰리에(moglie, 부인)’라고 해서 “부인이 필요하다”고 잘 못 말해 수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허락된 외출 때 시내에 나가 물건을 살 때도 그런 일은 있었다. 봉투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부스따(busta, 봉투)’ 대신 ‘부스또(busto, 흉부)’라고 해서 여종업원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실수할 당시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추억이 되었다.



“은규야, 너희들 나라 국기에 있는 저 문양은 남북 분단의 상징이냐?”

신학원에 함께 다니는 다른 나라 친구가 짓궂게 물었다. 매년 1월 7일 신학원 개교기념일이면 신관 지붕에 각국 국기를 게양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보고 묻는 것이었다.

난 이탈리아어 실력을 충동원해 음양 사상을 함축한 태극과 우주  
의 원리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정의, 풍요, 광명, 지혜를 상징하는 건  
곤감리 사괘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우리의 분단 상황에 대  
해 짓궂은 의도로 질문을 던졌던 친구는 매우 철학적이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바람에 필력이는 태극기를 한참 동안 바라  
봤다. 문득 고향 왜관의 풍경들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위로 파노라마  
처럼 지나갔다.



1954년 7월 9일,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날 위해 매일 간절한 기도  
를 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

버선발로 마당까지 내려와 갓난둥이인 나를 받아 안으셨다던 할  
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이, 이른 새벽 나를 깨우기 위해 장난스레 이불  
밑으로 쑥 밀어 넣으시던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신부가 되겠다는  
나의 말에 세상 다 얻은 듯 기뻐하시던 할아버지의 흥조 띤 얼굴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졌다.

나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애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홀로  
되신 할머니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어머니는 넷째 며느리였지만  
할머니를 모셔다가 별세하실 때까지 극진히 돌보셨다. 할머니는 별  
세하실 때까지 매일 나를 위해 묵주 기도를 바치셨다고 한다.



7월부터 신학원은 석 달의 긴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동안 우  
리는 로마 남쪽 알바노 호수 근처의 까스텔간돌포에 있는 우르바노  
신학원 별장에 머물렀다. 까스텔간돌포는 해발 700미터 고지의 사  
화산 중턱에 있는 피서지로, 알바노 호수는 근처에 교황 별장이 있어  
유명한 곳이다. 교황 별장 바로 옆에 우르바노신학원 별장이 있어서  
단체로 교황을 알현할 수 있었다.

별장엔 운동장과 수영장이 있어 가벼운 운동을 할 수도 있었고, 알  
바노 호수 주변을 산책하거나 낚시, 등산을 하기도 했다.

“한 번 맛봐.”

신학원 선배가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다. 입안에 넣기도 전에 벌써  
침이 가득 고였다.

“아우, 이 맛이.”

나는 눈을 찡긍하며 엄지를 척 세웠다. 낯선 나라에 와서 서툰 솜씨  
로 흉내 내 본 김치맛이 그럴싸했다. 배추 대신에 시장에서 양배추를  
사와 마늘, 고춧가루로 양념을 했는데 그 맛이 제법 먹어줄 만했다. 그  
러나 후각이 예민하고 생마늘 냄새를 싫어하는 외국인 친구는 “한국인  
들 또 김치 해먹었구먼!” 하고 빈정댔다. 우리는 그렇게 둘러앉아 짜고

매운 김치를 먹으며 고향의 맛을 떠올렸다.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에 김치 한줄기 척 없어 먹던 그 겨울밤이 그리워졌다.

+

“시험 어땠어?”

친구가 물었다. 우르바노대학교에서 시험은 구두로 간단히 문답하는 식으로 치러졌다. 로마의 교회대학에서는 시험을 구두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교수는 학생이 자신이 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언어에 서툰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응, 대충 교수님 의도대로 답은 한 것 같애.”

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맘으로 답했다. 교수님과의 문답을 끝내고 나는 아직 언어 실력이 서툰 점에 대해 교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내 말을 들던 교수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들 말을 하나도 몰라요. 당신들이 그 정도라도 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 당신들 모습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1957년, 나는 우르바노대학교 대학원 철학석사 학위를 땀다.



우르바노신학원 학생(1957)



내가 입학한 우르바노신학원은 17세기(1627년)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세운 신학원으로, 로마에 있는 신학원 중에서도 가장 유서가 깊은 신학원이었다. 교황청이 잘 보이는 자니꼴로 언덕 북쪽에 있었는데, 신관과 구관,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0여 개국 출신, 250여 명의 신학생을 수용하는 시설로 마치 인증 전시장과 같았다.

신학기는 10월 15일경 시작해 예수 성탄 때 짧은 봄 방학이 있고, 1월 10일 경 다시 시작해 6월 20일경에 학년이 끝났다. 신학원에서는 학생들끼리는 이탈리아어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이라 수업은 모두 전 세계 가톨릭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진행됐다. 다행히 라틴어로 된 교과서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라틴어 실력이 부족한 나로서는 매우 힘들었다.

신학원 내에서 생활할 때나 시내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이탈리아어를 썼는데, 이한사전(伊韓辭典)이 없어 일본에서 산 이일사전(伊日辭典), 이영사전(伊英辭典)으로 단어를 찾아가며 공부를 해야 했다. 가끔 의미가 전혀 다른 비슷한 발음의 엉뚱한 단어를 써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로마에서의 재미있는 추억들 중 하나였다.

신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숙식과 의복, 구두, 교과서 등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개인 용돈은 각자가 마련해야 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매년 한 번 대구교구청을 통해 송금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귀한 돈이라 아껴 썼다. 복장은 검은 수단에 가슴에 붉은 단추가 다섯 개 달려 있고, 주교처럼 허리에 붉은 띠를 둘렀는데, '신앙을 위해 순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식사는 지중해 식단이라 내 입맛에 잘 맞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점심식사 때마다 각자에게 포도주가 한 병씩 나오는 것이었다. 아주 작은 병이었다. 출국 인사를 하러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나는 절로 웃음이 났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포도주에 물을 타 마실 정도라고 했다.

1953년 내가 로마에 갔을 때, 우르바노신학원에는 한국 신학생 6명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신부 1명과 로마음악대학에서 유학 중인 일반 학생 1명이 있었다.

당시엔 한국대사관도 없었는데, 1957년에야 대사관이 생겼고, 초대 대사로 김영기 씨가 왔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도운 하와이 교포였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2대 한국대사로 이종찬 장군을 보냈는데, 그는 이승만 정권 시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며 독재정권에 반대했던 강직한 군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유학생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설이나 추석 명절과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면 유학생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해주었고, 유학 생활의 고단함을 살뜰히 챙겨주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석한 한국 주교들도 전심전력으로 도왔다. 한국대사관 직원들도 이종찬 대사를 본받아 모두 성심성의껏 유학생들을 보살펴 줬다.

당시엔 한국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로마를 방문하면 신학생들이 배웅을 나갔고, 시내 안내 등을 했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한 시절이었다.

1964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 129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해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차관을 얻기 위해 서독으로 가는 도중 급유를 위해 로마 공항에 잠깐 들렀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그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이종찬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독특한 인연이 있었다. 여순 사건 당시 남로당 경력으로 처벌의 위기를 맞은 박정희를 군인으로서의 청렴함과 우수한 자질을 들어 변호하고 보호해줬던 이가 국방부 제1국장이었던 이종찬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당시 군정을 비판한 악연도 있었다. 이 일로 박정희 대통령은 찝찝한 관계인 이종찬을 주이 한국대사로 보냈다.

이종찬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공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영접했다. 가까이에서 실제로 마주한 박정희 대통령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강직하고 다부진 인상이었다.

배웅 나온 일행들을 향해 걸어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절도있게 경례를 했다. 이종찬 대사에게 하는 인사였다. 자신의 쿠데타를 비판한 사람이었지만 선배 군인에 대한 예를 갖춘 것이었다. 이종찬 대사 역시 화답하듯 절도 있는 경례로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큰 사람들이구나.' 속으로 감탄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나는 서독에서 통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학교 친구 김홍배를 만나러 가 한국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근면성을 믿고 서독이 대한민국에 차관을 허용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다.

1964년 12월 차관을 얻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독일 함보른 탄광회사를 방문해 한인 광부 300여 명과 간호원 50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한 연설로 이 장을 맺고자 한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우르바노신학원은 처음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사람들은 ‘교황청 사관학교’라고 하는가 하면 ‘주교 양성소’라고 하기도 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우르바노신학원 출신 주교들이 많다.

우르바노신학원은 숙식비, 의복, 구두, 교재 등 모두가 무료여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모두가 신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제 서품을 받는 건 아니었다.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전체의 1/10 정도가 됐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널 위해 항상 기도할게.”

신학원 과정을 포기하고 떠나는 동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교수님이나 신학원 선후배들 누구도 그의 선택을 나무라지 않았다. 신학원에선 오히려 떠나는 학생을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해줬다. 로마에 남아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교와 전공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위해선 옷과 여비도 지원해줬다.

“다들 고마워.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간 꼭 다시 만나겠지?”

신학원을 나서는 동기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검은 수단 대신 말쑥한 양복 차림이 낫설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점점 멀어져가는 동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배웅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시편 89, 2)

1960년 12월 21일, 나는 우르바노신학원 성당에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아카지아니안 추기경에 의해 사제로 서품되었다.

나는 서품 기념 상본에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를 넣어 인쇄해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미천한 나를 사제가 되게 해주신 하느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고향 왜관에서 신자들이 보내준 정성스러운 장문의 축하 편지를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福되도다 一九六十年 十二月 二十一日이여. 이날 極東 韓國 出身의 알뜰한 한 靑年 副祭는 멀리 南歐의 聖都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代理하는 榮光의 職位 永遠한 司祭로 敍品되시도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축사는 한지 한 장을 가득 채웠다. 며칠이 걸려 붓으로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쓴 왜관 교우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제로서 첫발을 내딛는 나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소망이 절절히 느껴졌다.

다음날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 경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참석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시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후배 10여 명, 로마에 음악 공부하러 온 유학생,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에 왔다가 로마에 들른 사람들 해서 20명 정도가 미사에 함께 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의 가족과 친척은 서품식과 첫 미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한국은 너무 거리가 멀기도 했고 국민소득이 고작 78달러 정도로 외국 여행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다. 자기 아들이 사제 서품을 받는데 참례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대대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신 부모님 마음은 오죽했을까.

그렇게 첫 미사를 마치고 나는 성전 중앙의 성 베드로 무덤 앞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친척 친지들, 그리고 왜관 신자들을 위해 감사와 축복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미사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예약한 식당으로 갔다.

“아니, 아직 식사도 안 하시고 계셨어요? 먼저 드시겠더니...”

식당에 도착하니 아직 식사 주문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잖이 당황했다.

“신부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저희들끼리 먼저 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신부님.”

기도가 길어져 본의 아니게 첫 미사에 참석해준 귀한 분들께 실례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음식을 주문했다.



1961년, 나는 우르바노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를 땀다.



“Sempre Propagandista!”

우르바노신학원 원장 펠리체 첸치 몬시뇰은 신학원을 떠나는 내게 말했다. 우르바노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 그는 베트남 교황대사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 “내겐 유서 깊은 우르바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거절했다.

원장님이 내게 한 말은 평소에 그가 신학원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다.

“우르바노신학원 출신은 영원한 선교사다. 그리스도의 전사다.”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우르바노신학원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르바노대학 본관 외벽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 “Euntes docete omnes gentes(가서 만백성을 가르치라)”는 우르바노신학원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로마에서는 교황 요한 23세가 시작하고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무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가 교회 쇄신을 목표로 장엄하게 개막되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3천여 명의 주교들이 참석했는데, 공의회 중 신부들은 자기 나라 주교들의 심부름을 해야 했다. 대구에선 서정길 대주교가 참석했는데 나는 통역 등 그를 도우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의회를 주도한 두 분의 교황을 알현하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했다. 두 분 모두 벌써 시성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천주교회의 현대화와 토착화를 목표로 하는 공의회였다. 그 성과는 이미 전례의 쇄신과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학 역시 그 시야를 과감하게 넓혀가고 있었다.

교회는 폐쇄된 사회에서 개방된 사회로의 이행을 단행하고 있었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교회는 어딘지 모르게 현실 세계와 유리되고

현실에 무관심 내지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공의회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라틴어로만 진행하던 미사에 자국어 사용하게 됐고, 천주교 사제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미사경본과 성무일도는 물론 모든 천주교인이 준수해야 할 교회법전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다.

신자들을 등지고 지내던 미사를 신자들을 향하여 지내도록 한 것도 큰 변화였다. 동방정교회와 화해하고 개신교를 형제 종교로 인정하는 등 다른 기독교 교파와 일치를 모색하고 타 종교와의 대화도 강조했다. 그리고 교회가 빈곤과 분쟁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교회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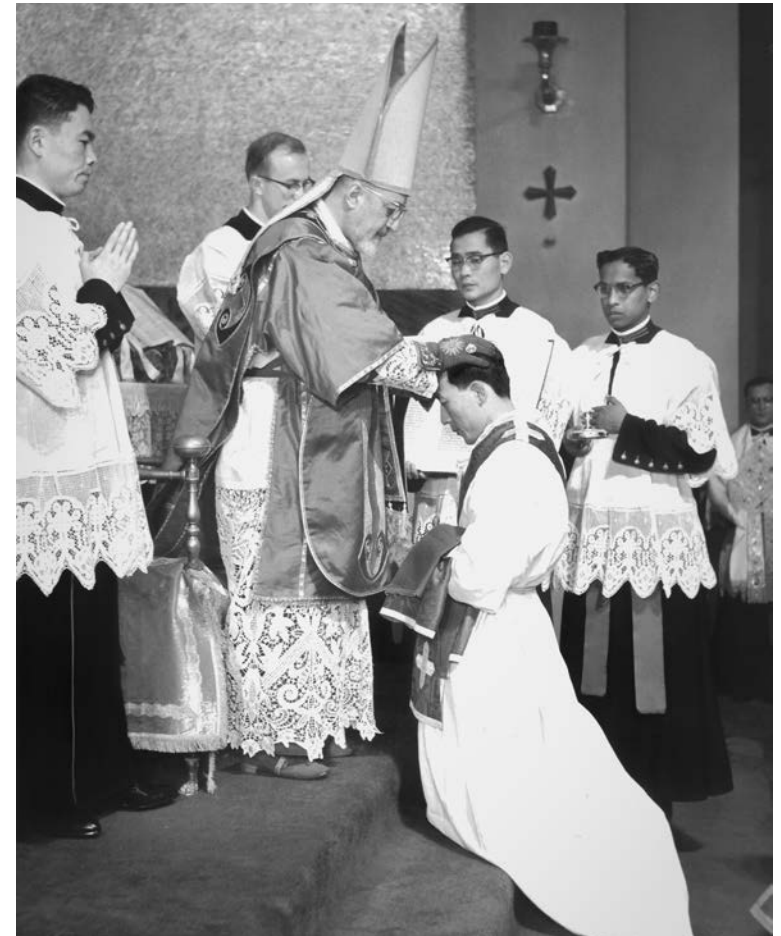


나는 철학과 신학의 석사학위를 땀지만 박사학위는 힘들 것 같아 단념하고 그 대신에 로마 라테란대학에서 현대법의 원천인 로마법과 교회법을 공부하기로 했다.

1965년, 법학석사 학위를 딴 나는 독일 칼스루에의 예수성심 성당에서 사목 연수를 하고, 영국 런던 영어학원에서 수개월 간 영어 회화를 배운 후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대학의 교목 보좌를 하면서 학생들 미사를 담당했다.



1967년 4월, 나는 교구장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제 서품(1960.12.21. 로마 우르바노신학원 성당)



첫미사(1960.12.22. 로마 성베드로 대성전 경당)



미사 후 성베드로 광장에서(1960.12.22)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첫 미사를 드릴 때 참석해 준 이들에게, 돌아가신 조부님을 비롯해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고향 왜관에서 온 마음을 담아 축사를 보낸 신자 교우들에게 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왜관 신자들이 보내준 축사 전문은 부록 파트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신학원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가톨릭 사제로서의 경험과 품성을 내재화하는 시간들이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각자의 가는 길을 응원했다. 신학원 역시 그렇게 배려했다.

1960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운이 좋게 공의회에 참석한 대구대교구장 서정길 대주교를 보좌하며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은 시성이 되신 두 분 교황을 알현하는 행운을 누렸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교회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기에 여기에 간략히 소개한다.

1962년 10월 11일,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가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의식 변화를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 결과 이 공의회는 가톨릭뿐 아니라 다른 종교, 나아가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인류 문명 전반에 혁명적 영향을 끼쳤다.

이 공의회는 교회의 자각과 쇄신, 신앙의 자유, 종교와 정치의 제 역할 찾기, 개별 민족과 사회 존중, 세계 평화,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다른 종교와의 대화, 전례 개혁을 비롯한 교회의 현대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 가톨릭의 조상 제사 수용, 각국의 토착화된 성모상 등장, 미사 집전에서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 사용, 평신도의 역할 부각도 모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일이다. 또 공의회는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정의에 대한 참여,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 정치·사회·경제적 피압박 계층의 자유 회복 등에 교회가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개방과 혁신 내용은 4개 헌장과 9개 교령, 3개 선언에 수록되어 있다.

가  
톨  
릭  
신  
학  
잡  
지  
의  
첫  
장  
을  
열  
다



14년 만에 고국 땅을 밟으니 감회가 남달랐다. 공항엔 서울에 사는 친지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마중 나온 친척들과 함께 공항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했다. 로마에 있을 때도 특별히 음식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막상 한국 음식을 접하니 그제야 귀국한 것이 실감 나는 것 같았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 봄기운이 완연한 들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열어둔 창문으로 시원한 봄바람이 오랜 비행에 지친 내 몸을 어루만지듯 훑고 지나갔다.

나는 며칠 동안 서울 친척집에 머물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에게 귀국 인사를 하러 갔다.

“조만간 또 보세.”

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내게 김남수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으레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고향 왜관은 내가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읍내는 완전히 복구되어 있었고, 그 많던 초가집들은 말끔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 멀리 남일정미소 굴뚝은 여전히 높이 솟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둘째 삼촌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정미소들이 여럿 생겨 예전만큼 사업이 잘 되진 않았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함석판 담장이 예전 모습 그대로 있었다. 담장 사이로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화초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사제는 이제 공인인데 너무 자주 집에 오진 마시게.”

친지들을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신부는 교회를 위한 사람으로 출가외인이니 교회 일에 힘쓰라는 당부였다.

생전에 할아버지는 신부인 막내 삼촌과 삼촌 친구인 신부에게도 존대를 했었다. 예전에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서 너무 신격

화 했었다. 아버지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신 탓에 내게 완전히 반말도 아닌, 그렇다고 존대도 아닌 식으로 말을 조심하셨다.

이튿날 아침, 왜관성당에서 간단한 환영 미사를 한 후 나는 대구로 갔다.



다시 만난 김남수 신부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내가 서정길 대주교님께 자네를 서울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네.”

왜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대구대교구청으로 갔을 때, 서정길 대주교가 나를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김남수 신부의 부탁 때문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됐다. 지난번 귀국 인사차 방문했을 때 조만간 다시 보자던 그의 말이 그냥 인사차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차장으로 내게 처음 주어진 일은 신부들을 위한 교양지를 창간하는 것이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후 신부들에게 공의회 정신을 알리는 잡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김남수 신부가 그 일을 맡게 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창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책을 내가 맡게 된 것이었다.

나는 선배 신부들과 신학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원고 청탁을 하며 동분서주했다. 성서와 신학뿐만 아니라 유럽 건축이나 미술 관련 칼럼도 받고, '사목단상'이란 수필도 받았다. 부록으로는 강론집도 넣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서로 가지죠.”

원고 청탁 겸 부산에 간 김에 피난 시절 임시 신학교가 있던 판잣집 터를 둘러본 후 영도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파출소로 가자고 했다.

내 옷차림과 태도가 이상했는지 누군가가 간첩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파출소에서는 온몸을 수색하고 이것저것 깐깐하게 물었다.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신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도통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천주교 부산교구청에 확인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파출소를 나서며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1967년 5월 1일, 사제들을 위한 교양지 '사목(司牧)' 창간호가 나왔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허인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인 선배는 우르바노신학원에서 중퇴하고 귀국해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허인 선배는 나중에 한국 최초의 이한사전(伊韓辭典)을 편찬했다.

나는 선배의 부탁으로 이탈리아어과에 시간강사로 나가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강사로 때문이 아니라 한국 대학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였다.

“수업은 할 만해?”

계단을 내려가며 허인 선배가 물었다. 나는 빙긋 웃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선배,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다음 학기부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말했다. 선배는 왜냐고 물었다.

“신학기부터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정 신부, 사목 잡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 김 신부한테 맡기고 광주가톨릭대로 가서 학생들 좀 가르치시오.”

당시 광주가톨릭대는 한국 제2의 신학교로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의 신학생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교수가 한 명도 없어 운영이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과 대구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대구신학교가 서울신학교에 흡수되어 서울신학교만 남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교세가 신장하면서 제2의 신학교가 필요하게 되자 광주대교구장 미국인 현 하롤드 대주교는 광주에 제2 신학교를 세우고 미국 예수회 위스콘신관구 신부들을 초빙해 운영했는데, 한국인 교수 신부가 없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구대교구장인 서정길 대주교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1968년 신학기부터 나는 광주가톨릭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에선 내게 교학처장이란 직책까지 맡겼다.



나는 철학개론과 인식론을 강의했다. 학생들은 미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하는 수업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였다.

“너희들 공부도 하고 친구들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신학잡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우수한 학생들 몇 명을 불러 모았다. 내 의도를 들은 학생들은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1968년 11월 ‘전망(展望)’ 편집부가 발족됐다. ‘전망’이라는 이름은 ‘앞을 내다 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담자’는 의미로 지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 미국인 교수들이 강의한 내용을 번역해 신기로 했다. 그리고 교수들이 추천하는 외국의 우수한 논문도 함께 읽고 번역해 신기로 했다. 학생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잡지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학생들이 번역해 온 원고를 나는 일일이 감수하며 함께 정성을 쏟았다. 얼마 안 되는 교수 월급이었지만 있는 대로 털어 학생들에게 용돈 주고 간식도 사주며 공을 들였다.

1968년 12월, 한 달 만에 전국 유일의 계간 가톨릭 신학잡지 ‘전망(展望)’이 세상에 나왔다. 책을 받아든 편집부원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그득했다. 나 역시 그런 부원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광주가톨릭대 전망 창간(1968.1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출판국장(1973)



고향 왜관의 많은 모습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진 왜관성당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조부님은 1928년 토지 1,895평을 마련하고 공사비의 3/4을 부담해 고딕 양식의 왜관성당을 세웠다. 왜관성당은 당시만 해도 왜관 최초의 붉은 벽돌 건물이라 사람들에게 경이와 관심의 대상이었다.

왜관성당 초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여동선 신부는 조부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단 위 오른쪽 벽에 그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상을 세우고, 성당 종에는 조모인 최 오티리아가 '종의 대모'라고 새기게 했다.

새로 지어진 성당에는 사연이 있었다. 함경남도 원산에 있던 덕원 성 베네딕도 수도원은 해방 후인 1949년 5월 공산 정권에 의해 수도원이 폐쇄되고 신부들은 추방돼 독일로 돌아갔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왜관을 지나는 길에 언덕 위 왜관성당을 발견하곤 대구대교구를 찾아가 왜관성당을 자신들에게 주면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왜관읍내에 성당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사연으로 왜관읍내에 현대식 왜관성당이 새로 지어진 것이었다. 이 성

당에서 나는 귀국 후 부모님과 친척, 왜관 신자들과 함께 환영미사를 가졌다.

귀국 후 왜관 본가에서 하룻밤만 자고 곧장 서울로 올라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신부들을 위한 교양지 '사목(司牧)' 창간을 맡게 된 나는 그 후로도 출판 관련 업무와 인연이 쌓였다.

1968년 광주가톨릭대학에선 학생들을 위해 '전망(展望)'이란 신학잡지(계간)를 창간했는데, 나는 4년 동안 교수로 근무하면서 내 사재를 몽땅 털어 학생들을 지원했다. 내 후임자는 1973년 6월호(통권 21호)부터 잡지 이름을 '신학전망(神學展望)'으로 바꾸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톨릭 신학잡지가 되었다.

이런 인연 때문이었을까? 1973년 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출판국장으로 임명되어 전례서 출판과 '사목', '경향잡지(京鄉雜誌)' 편집을 맡게 되었다. '경향잡지'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잡지로 1906년 10월 19일 '보감'이란 이름의 주간지로 창간되었는데, 당시 발행인 겸 주필은 프랑스인 안세화 신부(후에 초대 대구교구장 역임)였다. 지금은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잡지가 되어 최근호(2023년 12월)는 통권 1869호이다.

주교직을 거절한 건 정신부가 처음이오



한국주교회의는 1981년 춘계총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주교회의 의장으로, 김남수 주교를 총무로 선출했다. 두 분의 배려로 나는 주교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14개 교구는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구 간 협력이 요청되는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 주교들로 주교회의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사무처가 곧 사단법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이다. 사무처는 교구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기구였고, 나아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대외 관계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대정부, 대사회 창구의 기능을 담당했다.

“신부님, 오늘 회의에서 뭐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안기부에서 나온 요원이 나를 붙들고 물었다. 5공화국이 들어서고 중앙정보부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매년 주교회의 총회가 열릴 때면 정보부에서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대놓고 사찰을 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봅시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회의 중에 메모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런 나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던 요원이 말했다.

“내일 봅시다.”

마치 자기 사무실인 양 수시로 출입하는 요원의 등에 사무처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다.

봄, 가을에 두 번 1주일 간 개최되는 주교회의 총회는 내게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 매일 사무총장실 앞에 자리를 틀고 있는 안기부 요원의 거만한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도 스트레스였지만,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회의 내내 회의 중 오간 내용들을 메모하고, 그것을 밤잠 설쳐가며 정리해 다음 날 회의 시작 전 주교들 앞에서 읽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전산

화가 되지 않은 때라 회의록을 속기하는 데 무척 힘들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면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요약한 회의록을 영어로 번역해 주한 교황대사에게 전해야 했다. 안 그래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귀찮게 하는 안기부 요원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정 신부를 현재 공석인 전주교구장으로 교황청에 추천하려고 하는데, 정 신부 생각은 어떠시오?”

루치아노 안젤로니 주한 교황대사의 갑작스런 제안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전주교구장 자리가 공석이라 주교회의 사무총장인 내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자고 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나를 추천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주교직은 한 지역의 신자들을 맡아 지도하는 큰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저 대신 제주교구장인 박정일 주교님을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일 주교는 나의 우르바노신학원 2년 선배였다. 제주교구는 아주 작은 교구이고 신부 수도 작아 타지의 신부가 교구장이 되었는데

나는 박정일 주교는 좀 더 큰 교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대답에 교황대사는 많이 놀란 눈치였다. 보통 어느 교구에 교구장 공석이 생기면 교황대사는 제일 먼저 주교회의 사무총장을 찾아 의견을 구한다. 주교회의 사무총장이 전국 신부들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교황대사의 연락을 받고 이미 마음속에 박정일 주교를 추천할 생각이었다.

“허허, 주교직을 거절한 신부는 한국에선 정 신부님이 처음이요.”

교황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비록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주교직을 제안해준 데 대해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교님, 우리 대구대교구에서 인도 켈커타의 데레사 수녀를 초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녀를 통해 천주교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고등학교 3년 후배인 대구대교구 이문희 보좌주교는 내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녀를 초청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성사시켰다. 물론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알렸다.



1981년 5월 3일, 데레사 수녀가 한국 땅을 밟았다. 그녀가 도착하는 공항에는 몰려든 인파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이었다. 어찌나 인파가 많이 몰렸던지 마중 나간 김수환 추기경이 유난히 작은 몸집의 데레사 수녀를 감싸 안다시피 하며 인파를 헤치고 공항을 빠져나와야 했다.

다음 날 신문에 데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의 사진이 실렸고, 그 아래 ‘보디가드 김 추기경’이라는 사진 설명이 달렸다.

데레사 수녀의 인기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가는 곳마다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인파로 붐볐고,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도 쉬지 않고 터졌다. 그녀는 본래 카메라 플래시를 무척 싫어했는데, 기자들의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대구 희망원을 방문했을 때 수녀는 “카메라 플래시를 거부하지 않을 테니 그때마다 연옥 영혼을 한 명씩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연옥이 텅텅 비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해 그 자리에 함께 한 김 추기경을 비롯해 좌중을 웃게 하기도 했다.

“굶주림은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헐벗음은 옷을 걸치지 못한 헐벗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인간 존엄성이 벗겨진 상태의 헐벗음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강대 소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테레사 수녀가 던진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테레사 수녀가 머문 3박 4일, 대한민국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1997년 9월 5일 인도 캘커타에서 87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선종 6년 만인 2003년 10월 19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30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됐고, 2016년 9월 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성됐다.



“정 신부님, 노태우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한 번 마련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황대사의 부탁에 나는 좀 난감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노태우 대통령과 나는 경북고등학교 동기였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수호 의원이나 제일비료 이맹희 회장도 같은 동기였다. 교황대사뿐만 아니라 가끔 이런 난감한 청탁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유는 주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맥 때문이었다.

교황청은 전 세계 각국에 교황대사를 파견하는데, 국제법상 일반 국가의 대사와 동등한 직위이며, 주재국 정부와 바티칸 시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주재국의 교회 실정을 교황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황대사를 일컫는 라틴어 ‘nuntius’는 ‘소식전달자, 전령’을 의미한다.

노태우 대통령 일화의 결과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국주교회의의 사무총장 취임미사(1981.5.29. 서울 충무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기획위원장 취임(1981.7.31)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정신운동분과위원회 회합(1983.1.31. 서울)



안젤로니 교황대사 면접(1981.8.28, 서울)



한국 주교회의는 1981년 춘계총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주교회의 의장으로, 김남수 주교를 총무로 선출했다. 나는 이 두 분의 배려로 주교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1981년부터 1990년 다시 로마에 갈 때까지 임기 3회를 연임했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다.

주교회의는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열며,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준비하고 필요, 긴급 시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총회 안에는 교리(敎理), 성직(聖職), 사목(司牧), 사회(社會) 등 상설 주교위원회가 있어 관계 분야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며 그 산하 전국 위원회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사목주교위원회는 훗날 선교사목(宣敎司牧) 주교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국 주교들이 참석하는 주교회의 총회는 봄과 가을 두 번 1주일간 개최된다. 나로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서기를 하는 일이었다.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고 속기술도 모르는 내가 회의 중에 메모한 것을 밤잠을 설치가며 정리하여 다음 날 회의가 시작할 때 읽는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신문기자들을 불러 보도자료를 주어야 하고 회의록을 요약, 영어로 번역하여 주한 교황대사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교황대사는 그것을

교황청에 보낸다. 유신 체제 때 중앙정보부가 5공화국에선 안기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총회 때마다 요원이 응접실에 와서 기다렸다가 주교들이 무슨 반정부 결의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 귀찮은 일이 많았다.

인도 캘커타의 성녀로 알려진 데레사 수녀의 방한은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주는 감동에 더해 신앙인으로서 보여준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천주교 성직자인 내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의 방한 일정과 방문 장소를 조율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당시 봉덕동에 있던 효성여대와 대구 희망원 등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서울에선 서강대를 비롯해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다.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문희 주교를 통해 데레사 수녀의 방한 추진을 제안한 보람을 느꼈다. 그녀가 이 땅에 머문 시간은 3박 4일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감동과 메시지는 오래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남았다.

1981년 루치아노 안젤로니 주한 교황대사가 전주교구장 자리가 비었는데 적임자가 없다면서 나를 전주교구장으로 교황청에 추천하겠다고 하기에 나는 주교감이 못 된다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했고, 그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주교직을 거절한 신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외국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주교직은 한 지역의 신자들을 맡아 지도하는 큰 십자가이기에 아무나 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신조였다. 더구나 전주교구는 한국인 교구장으로

시작된 유서 깊은 교구일 뿐만 아니라 전주는 지역 정서가 대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 사람인 나보다는 제주교구장 박정일 주교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했고, 교황대사는 내 말대로 했다.

어느 교구에 교구장 공석이 생기면 주교회의 사무총장은 제일 먼저 교황대사의 상담역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교회의 사무총장은 전국 신부들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무총장의 정보력과 인맥은 때로 곤란한 청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에둘러 사양하거나 모른 척하며 피해 가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으나 자칫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하거나 민감하게 해석될 수도 있기에 나만의 내밀한 기억으로 간직하고자 함을 양해 바란다.



김수환 추기경과 젊은이들(1983.4.20. 서울)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시작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자 이승훈이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해를 기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18세기에 이미 천주실의 등을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실학자들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결국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을 기점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베이징으로 가는 사신 행차에 따라가게 된 이승훈은 베이징 북당(北堂) 성당을 찾아가 필담으로 교리를 배웠고, 1784년 프랑스인 선교사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조선 천주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981년 7월 31일 주교회의는 200주년을 준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그 사무국을 주교회의의 사무처에 설치하고 200주년 기념 주교 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내게 맡겼다.

그리고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 경갑룡 주교),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김남수 주교), 사목회의위원회(박정일 주교), 정신운동위원회(정진석 주교) 등 4개 집행위원회를 두었는데, 나는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중앙기구인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들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매우 바빴다.

200주년 기념행사 중 제일 큰 행사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3위 순교자 시성식이었다. 무엇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두 행사를 집전하게 돼 국내외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대개 시성식은 로마에서 거행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교황청에 교황이 직접 우리 땅에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집전해주길 요청했고, 교황청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신부, 이 중에 어떤 게 좋겠어?”

2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수 주교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기념사업 슬로건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중에서 하나를 짚었다.

“이 땅에 빛을”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았다. 김남수 주교 역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날 보며 싱긋 웃었다. 서로 뜻이 통했던 것이다.

“주교님, 슬로건에 걸맞은 뭔가 실천적인 사업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200주년 슬로건에 맞춰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개안 수술을 건의했다. 김남수 주교는 무릎을 치며 “정말 좋은 생각일세. 정말 좋은 생각이야.” 활짝 웃었다.

실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개안 수술은 ‘이 땅에 빛을’ 주제로 한 200주년의 의미와 정신을 구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천주교회 산하 병원과 의료기관, 자원봉사자와 개인 안과병원에서 시행되었고, 약값과 입원비 전액을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부담했다. 1983년 5월부터 시작된 무료 개안 수술은 1988년 12월까지 계속돼 모두 1,507명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



1984년 5월 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김포공항을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린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교자의 땅”이라고 되뇌며 땅에 입을 맞춰 이 땅과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했다.

나는 200주년 주교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교황의 방한 일정과 행사 문제를 교황청 의전 담당자와 조율하고, 교황의 영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매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교황께서 소록도 한센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을 교황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애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록도 방문 일정이 생겼다. 나는 교황과 일행들을 모시고 소록도로 가 안내를 맡았다.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만난 교황은 그들의 머리를 일일이 어루만지고 손을 잡으며 축복하고 기도했다. 나는 무심코 멀리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센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병에 대한 공포는 나를 그들 곁에 가지 못하게 붙들었다.

훗날 한센인들이 교황 방문 때 자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한국인 신부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후회로 한동안 나 자신을 질책했다. 그곳에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맨손으로 환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간호하는 오스트리아인 간호

사 마리안과 마가렛도 있었고, 더 가까이에는 왜관 삼청동에 한센인 마을과 복지시설을 만들고 자주 방문해 봉사를 하셨던 아버지도 계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후, 소록도의 그 두 천사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자 한센인들에게 폐가 될까 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몰래 고국으로 가버렸다. 그들은 또 한 번 한국인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역사적인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3위 순교자 시성식이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교황은 순교자 103위를 성인으로 선포했고, 이로써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를 비롯한 한국의 성인들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교회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 ‘양심의 소리’로 알려진 인권운동가 헬더 까마라 대주교도 한국주교회의의 초청으로 방한했지만 장엄한 103위 시성식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시복 수속이 추진되고 있으니 나로선 매우 흐뭇하다.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순교자 시성식은 마쳤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200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친 후 서울대 김세중 교

수가 제작한 김대건 성인 동상을 김대건 성인이 유학한 마카오의 까모에스 공원에 1985년 10월 4일 세웠다. 그리고 김대건 성인이 마카오 민란 때 일시 피난한 필리핀 롤롬보이 공원에는 1986년 5월 22일에 세웠다. 당연히 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과 총무 김남수 주교가 동상 축복을 주려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1784년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 신자 이승훈의 영세와 1845년 상하이에서 서품된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 성인의 시성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주교회의 승인을 받고 1986년 12월 20일 미국인 선교사 함 제라르도 신부와 정 로벨도 신부를 시켜 중국 정부가 승인한 베이징 교구장 후티에산 주교 및 상하이 교구장 장지아슈 주교에게 200주년 기념 동판을 보내면서 베이징 북당 성당과 상하이 김가항 성당 벽에 부착해 줄 것을 부탁했고, 두 주교는 그렇게 하기를 약속했다.

중국어와 한글로 새겨진 동판(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2cm)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최초의 신앙인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 이곳 베이징에서 영세한 사실을 영구히 기념하고자, 여기 동판을 붙인다. 한국 천주교회 신자 일동.”

- 베이징 기념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즈음하여,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은 사실을 영구히 기념하고 그의 시성을 기리고자, 여기 동판을 붙인다. 한국 천주교회 신자 일동.”

- 상하이 기념판



총무로에 있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는 주교회의의 때마다 지방에서 올라온 주교들의 숙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매년 광주 고난의 집, 왜관 피정의 집 등을 전전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으로서 여간 미안한 마음이 아니었다.

“당신들 땅을 우리에게 좀 파시오.”

나는 광진구에 있는 메리놀선교회를 찾아갔다. 건물을 짓기 위해선 우선 땅이 필요했는데, 천주교중앙협의회 형편으로는 적절한 부지 매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메리놀선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면목동 부지 일부를 우리에게 팔라고 부탁하러 갔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짓가대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대신 당신들이 살 때 가격으로는 살 수 있으니 우리에게 땅을 좀 팔아주세요.”

계속 된 나의 요청에 푸른 눈의 신부는 선뜻 그러자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연신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1983년 2월 17일, 저렴한 가격에 부지(1,000평)를 확보했으니 이제 건축비를 충당해야 했다. 각 교구마다 건축비를 요청하려 해도 교구들 사정이 뻥한지라 일찌감치 생각을 접었다. 우선 우리가 발행하는 전례서와 잡지 판매 수익금, 독지가들의 기부금 등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다.

십시일반,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1986년 7월 16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새 동지가 생겼다.

“허허, 정 신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1986년 7월 16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축회관 축성식이 끝난 후 김남수 주교가 회관을 둘러보며 나를 치하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한 이날 축성식에는 전국 각 교구 주교들과 주한 교황대사 몬테리시 대주교 등 국내외 가톨릭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 축복기도를 올렸다.

연건평 2,553평 규모로 건립된 신축회관은 유희준 교수(한양대 건축과)가 설계를 담당했는데,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새로 지어진 회관은 1층 출판국, 2·3층 각종 위원회, 4층 주교회의 사무처와 자료실, 5층 주교 숙소 및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6층 사제관과 주교 숙소, 7층 성당과 수녀원 등으로 배치됐는데, 무엇보다도 주교들을 위한 숙소를 넉넉히 마련할 수 있어 보람됐다.



교황 영접(1984.5.5. 대구공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알현(1984.5.6. 주한교황대사관)



김대건 성인 동상 건립(1986.5.22. 필리핀 롤롬보이)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 임명(1986.9.18. 로마)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총회(1986.9.18. 로마)



한국주교회의의 사무처 준공식(1986.7.16. 서울)



한국주교회의의 사무처 신축 건물 완공(1986.7.16. 서울)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은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직책이다. 교황이나 데레사 수녀 등 유력인사들의 방한과 체류 일정, 방문 장소 등도 조율해야 했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 등 교회의 주요한 행사들도 꼼꼼히 챙겨야 했다.

1981년부터 1990년 다시 로마로 돌아갈 때까지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교회 내 직책을 함께 수행했다. 가령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나는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을 겸했는데, 이 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고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지부는 같은 목적으로 한국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하여 세계 복음화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나는 교황청 세계성체대회 위원도 겸했다. 위원의 임무는 로마에 가서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성체대회의 개최지와 날짜를 결정하는 일이다.

1986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5년 임기의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으로 임명되어 겸직했다. 인류복음화성 총회는 인류복음화성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당시는 2년마다 1주일 동안 로마 우르바노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위원은 추기경 39명(교황청 장관 추기경들, 김수환 추기경을 포함한 각국 추기경들), 대주교 및 주교 14명, 나를 포함한 교황청 전교기구 대표 4명, 수도회 대표 4명 등 총 61명이었다. 인류복음화성은 세계 복음화와 선교 협력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톨릭 국가가 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가 주 대상이다. 지역이 방대하고 인류복음화성 장관 추기경의 권위가 막강하여 한때 그를 ‘붉은 교황’(붉은 옷을 입은 교황이란 뜻)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2022년 3월부터 이 부서가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와 통합되면서 업무가 더욱 커져 교황청의 다른 부서와 달리 교황이 직접 수장을 맡게 됨으로써 그런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

1987년 1월 1일 나는 주교회의 사무처 안에 ‘한국사목연구소’를 개설하고 초대 소장을 맡았다. 그 목적은 주교회의의 선교 사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하고 각종 사목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사목 쇄신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중요 행사로는 한국 교계제도 설정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신흥종교에 대한 주교회의 세미나 개최, 한국 천주교회 기원 문제 세미나 개최 등이었다.

그 외에 토착화 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발표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 교과 교육연구회를 구성,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폐단을 지적했으며 상제례 토착화 연구회를 구성, 연구 발표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

이외에도 1981년부터 4년간 한국가톨릭실업인회를 맡아 아시아실업인회

회원국으로 가입, 회보 창간 등 가톨릭 경제인들의 신앙 향상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1983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신앙교리위원회와 이주사목위원회 총무 등의 직책을 겸했다. 교회법위원회에선 새로 나온 ‘교회법전’을 번역했다. 로마 라테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주교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천주교회의 주방장과 같다. 나는 좋은 일이든 굵은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으로 주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했던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5년마다 주교들과 함께 교황청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각국 주교단은 5년마다 교황청을 방문해야 한다. 최소 1주일, 어떤 때는 10일 이상 걸린다.

주교들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무 부서인 인류복음화성을 방문하여 장관, 차관, 한국교회 담당 국장과 함께 한국교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숙소에서 교황과의 개별 알현을 기다리는 동안 아침 일찍 성 베드로 대성전의 사도 베드로 무덤 앞 제대에서 공동으로 미사를 드리고, 다음날 성 바오로 대성전의 사도 바오로 무덤 앞 제대에서 공동으로 미사를 드린다. 성 요한 대성전과 성모 대성전에서 미사를 더 드릴 때도 있다.

교황청에서 연락이 오면, 주교들은 교황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기 교구 문제를 보고하고 협의한다. 교황 개별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 주교들은 자기가 관심이 많은 교황청 부서를 개인적으로 방문한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임시 주교 총회를 열 때가 많다.

모든 주교들이 교황과의 개별 알현이 끝나면 다음 날 아침 교황 경당에서

교황과 합동 미사를 드리고 그날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 그때 주교회의의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로마 한인 성당에서 재 로마 한인 신부, 신자들과 미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 주 바티칸 한국대사 초대 만찬에 참석한다.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은 모든 일정과 행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원래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은 3년 임기로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한데, 나는 김수환 추기경과 김남수 주교의 배려로 세 번의 임기를 채웠다. 어려모로 부족한 내게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두 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인도 뭄바이 이반 디아스 대주교 방한(1984)



한국주교단 교황청 정기방문(1985)

교  
황  
청  
립  
한  
인  
신  
학  
원  
문  
을  
열  
다



1990년 나는 한국천주교회의 교세 신장에 따라 로마 유학 신부가 증가하므로 로마에 한인신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교회의에 건의했다. 주교회의는 이를 즉시 승인하고 1990년 11월 22일 나를 로마 한인신학원 재단 대표로 임명했다.

9년의 주교회의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나는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우선 로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값싼 농지를 매입했다.

“신부님, 아예 우리 사무실로 출근을 하세요.”

지목 변경과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를 위해 관공서를 내 집 드나들듯이 했다. 담당 공무원의 농담에 나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낙천적이고 유쾌한 담당 공무원은 내가 내민 서류를 넘기며 대강 훑어봤다.

“어차피 제대로 검토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 테니,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인허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애꿎은 시간만 자꾸 가고 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나는 로마교구청과 주이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두 기관의 도움으로 한인신학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94년 10월 12일, 주교회의는 나를 로마 한인신학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신부님, 언제 주교 되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비서 지비스 몬시뇰이 대뜸 물었다. 그와는 자주 만난 사이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였다. 나는 주교회의 사무총장으로 한국 주교단과 함께 로마를 방문할 때 교황청으로 안내하는 일을 늘 했고, 로마에서 한인신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도 한국 주교들이 오면 안내와 통역을 맡아 교황의 비서인 그를 자주 만나게 됐다.

“허허, 한국에는 저 말고도 주교 될 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나는 빙긋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내심 그의 속내는 알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 주교가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사제 서품 받은 지 30년이 넘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진을 내밀며 사진 속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국 주교들과 함께 교황을 알현하고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사진 속 주교들은 모두 주교 수단을 착용하고 있는데, 나만 로만 칼라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신부님도 늦었지만 이제 주교들과 같은 복장으로 사진을 찍어야죠.”



1995년 6월 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나는 ‘몬시놀’로 서임되었다. 몬시놀은 일종의 명예직이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임된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 비서가 나를 몬시놀로 추천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몬시놀 복장은 주교 복장과 비슷하다. 한국의 다른 몬시놀들은 중요한 교구 행사 때 그 옷을 입고 특별대우를 받는데,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그 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그 옷을 몬시놀 서임 때,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로마 한인신학원을 직접 방문해 축복하셨을 때 입었을 뿐, 그 후에는 다시 입지 않고 옷장 구석에 걸어두고 있다.

그 비서는 지금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의 대교구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6년 11월 19일 ‘교황청 베드로 사도좌 순례사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겸직했다.

2000년 1월 25일 로마 한인신학원이 ‘교황청립 한인신학원’(Pontificio Collegio Coreano)으로 승격되었다. 한인신학원 안에 있는 한국 순교 성인 성당은 2000년 10월 8일 봉헌되었다. 그 앞에 있는 광장은 ‘한국 순교 성인 소광장’(Largo Santi Martiri Coreani)이라고 명명되어 로마 지도에 등재되었다.

2001년 3월 2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인신학원을 방문, 축복했다. 그 자리에서 주교회의 의장 박정일 주교는 내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귀하는 로마 한인신학원의 설립 기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기에 한국 주교회의는 오늘 교황님을 모시고 그 축복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정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그때 마지막으로 알현했다. 그는 2005년 4월 2일 서거했고, 2014년 4월 27일 성인이 되었으니 역대 최단 기간에 성인이 된 분이다.

그에 의해 몬시놀로 서임되었으니 내게는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몬시놀은 원래 주교들과 교황청에서 일하는 고위성직자들을 이르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교 품을 받지 않은 원로 사제 가운데 교황청으로부터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어떤 신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애교스럽게도 나를 ‘몬시놀 신부님’이라고 부른다.



2003년 8월 19일, 아버지는 서울 강남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시어 8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3묘역 제2묘에 안장되셨다(향년 91세). 4년 먼저 별세하신 어머니는 이때 아버지와 합장되셨

다. 많은 조문객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주셨다. 장례식 후 송석환 선생을 비롯한 순심학교 교사들이 칠곡군 애국동산에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추모비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이창기, 이두석 애국지사의 추모비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몬시뇰님, 로마에 좀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로마의 내 후임자는 내가 좀 더 로마에 머물기를 권했지만 2004년 8월 19일 나는 미련 없이 로마에서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로마 한국 신부들과 신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했다.



교황 한인신학원 초석 축복(1988.12.2. 로마)



교황 한인신학원 방문(2001.3.23. 로마)



한인신학원 신축 공사장(1999.10.14. 로마)



전 세계 천주교회의 중심지인 로마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수십 개국 교회에서 신학원을 설립해 교황청 대학교에 젊은 신부들을 유학시키고 있었다. 한국교회도 교세 신장에 따라 로마 유학 신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인신학원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인신학원은 한국 성직자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이지만 한국 주교회의 로마 연락사무소로서 한국 주교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한국교회와 교황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교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기여하며, 그 부속 성당 '한국 순교 성인 성당'은 재 로마 또는 로마 방문 한국 신자들을 위한 사목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성당 규모는 작지만 로마의 명물이 되었다. 성당 설계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이다. 8각형에다 중앙에 제단이 있고 참례자들은 제단을 둘러앉아 미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성당 연구 전문가들도 가끔 방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귀국하자마자,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시몬장학회’를 설립했다. 장학회 사무실은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쓰시던 옛 동창학원 자리에 차렸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구 경북지역의 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학생, 대구가톨릭대 학생이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장학증서를 만들어 교장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몇 마디 격려사를 했다.

“큰 꿈을 품어라. 이상을 높게 갖되,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라.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사회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 달라.”



나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질녀 주리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수익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기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씩 나누어 줄 뿐이다. 시문장학회가 각종 사업 자금으로 1년에 쓰는 돈은 2억 원 정도 된다. 개인 용돈 10여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장학금으로 쓴다.

장학회의 규모도 동생들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점점 커졌다. 마음을 비우고 남을 돕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커지고 부자가 되는 느낌이다.



2009년 12월 24일 왜관읍 석전리 ‘칠곡군 애국동산’에 형제 애국지사의 추모비를 건립했다. 내 큰아버지(정행국) 추모비 건립위원장은 내가 맡고 내 부친(정행돈) 추모비 건립위원장은 송석환 선생이 맡았다.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추모비는 화강석 거북 받침에 긴 비문을 작은 글씨로 새긴 오석을 올리고 그 위에 용머리를 얹는 것이 보통인데 얼마 안 가서 풍화작용으로 비문이 마모되어 읽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비석은 아무 장식 없는 큰 오석에 큰 글씨로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2010년 3월 26일 나는 대구가톨릭대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비를 세웠고 대건고등학교에도 같은 비석을 세웠다. 나는 그 며칠 전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에게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추모미사 집전을 촉구하면서 미사 강론 요점까지 보내 드렸더니 그는 그대로 했다.

2010년 12월 29일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은 내게 다음과 같은 감사패를 주었다.

“귀하께서는 평소 대구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 대구가톨릭대에 안중근연구소가 설립되고 5월 13일 안중근 의사 동상이 건립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추모비, 동상, 연구소가 있는 대학은 대구가톨릭대가 유일하다.

내 아버지가 전석재 총장에게 안중근 의사의 딸 안현생이 대구에 피난 와 있음을 귀띔했기 때문에 전 총장은 그녀를 3년간(1953-1956) 문학과(불문학 전공) 교수로 채용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서울로 가야 했기 때문에 3년밖에 재직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추모비 비문은 다음과 같다.

#### (전면)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진사 안태훈의 장남으로 태어나 문무를 고루 익혔다. 1897년 천주교에 입교, 부친과 함께 빌렘 신부를 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선교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진남포에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다 1907년 연해주로 망명, 대한의군 참모총장 특파독립대장으로서 의병을 이끌고 함북 경흥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었다. 위순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하였으나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3월 26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에 시문장학회는 삼가 이 비석을 세운다.

#### (후면)

나는 천국에 가셔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최후 유언)

安重根 義士 順興安氏文成公派二六代 字 應七 洗禮名 토마스 旅順 監獄 暗埋葬  
配位 金亞麗 安陵金氏 洗禮名 아네스 子女 芬道 俊生 賢生  
딸 안현생 데레사는 3년간(1953-1956) 본교 문학과(불문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1년 4월 7일 모범 교사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정행돈교육상'을 제정했으며, 같은 해 9월 20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정재문사회복지상'을 제정했다.

2013월 2월 21일 나는 정부로부터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나는 조부님이 내게 주신 교훈인 '나누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조부님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항상 강조하셨다.

조부님의 가르침이 내 평생의 좌표가 되었다. 조부님의 검소함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살아있는 본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자가용이 없다. 한 달 용돈은 믿기지 않겠지만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사제들을 위한 공동주택에 살면서 매일 한 시간씩, 바로 옆에 있는 야산에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다. 그 외에 개인적인 모임도 별로 없다. 괜히 쓸데없는 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는 동안 가 보았던 아프리카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여 2015년 7월 25일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곤 국가인 모잠비크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그곳 교장은

‘정행돈중학교’라고 이름 지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여러 번 보냈다.



2017년 3월 9일 칠곡군 불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칠곡군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세우고 2층에 ‘칠곡군립 정행돈기념관’을 개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내게 감사패를 주었다. 2017년 12월 27일에는 칠곡군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칠곡군 정행돈장학회’를 설립했다.



2019년 2월 27일 대구가톨릭대에 애국지사 정행돈장학기금 20억 원을 기탁했다. 대구가톨릭대가 존재하는 한, 매년 최소 50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다. 1인당 장학금이 너무 적으므로 장학생 수를 줄이고 장학금 액수를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대학 장학팀장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고 해, 그러기로 했다.



2023년 4월 14일 대구가톨릭대에 시몬장학기금 20억 원을 또 기탁했다. 이 장학금도 매년 최소 50명에게 100만 원씩 영구히 지급될

것이다. 나는 70세 때 은퇴하면서 시작한 이 장학사업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쁜 마음으로 계속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2024에는 대구가톨릭대에 내 어머니를 기리는 최재경장학금이 새로 생김으로써 정행돈장학생 81명, 최재경장학생 55명, 시몬장학생 55명, 합계 191명의 학생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나는 매우 행복하다.



모잠비크 시몬장학생들(2012.10.31)



칠곡군수와 정행돈 선생 후손들(2017.3.9. 왜관)



대구가톨릭대 정행돈장학기금 조성(2019.2.27)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2011.5.13. 대구가톨릭대)



시문장학회관 개설(2011.9.24. 예관)



제1회 정재문사회복지상 시상식(2011.9.20. 매일신문사)





## 내 삶, 신앙의 뿌리

### 조부 정재문(鄭在文, 1876-1954)

나의 조부 정재문 선생은 1876년 10월 2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정씨(慶州鄭氏) 양경공파(良景公派) 64대이다. 자는 순경(舜卿)이고 16세 때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920년 왜관에 와서 남일정미소를 차렸으며 낙동강과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수완과 성실성으로 왜관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정재문 선생

그러나 그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뿐만 아

니라 독립운동과 불우 이웃 돕기에도 힘썼다. 1922년 자기 집에 천주교 공소를 열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신자가 많아지자 1928년 토지 1,895평을 마련하고 공사비 3/4을 부담, 큰 고딕 성당을 세웠다. 왜관 성당은 이 지역 최초의 붉은 벽돌 건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경이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관 성당 초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여동선 신부는 그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제단 위 오른쪽 벽에 그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상을 세우고 성당 종에는 그의 부인 최 오티리아(崔秩羅 1872-1959)가 '종의 대모'라고 새기게 하였다.

정재문 선생은 3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이동현 신부가 1936년 5월 15일 개원한 소화여자학원(현 순심중학교)을 재정적으로 도와 3대 원장이 되어 여성 교육에도 힘썼다. 소화여자학원은 이 지역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그는 1945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문중 토지 64,814평을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불우 이웃 돕기에 회사한 뒤 1954년 7월 9일 서거하였다. 당시 왜관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는 평소 자기 밥상에 두 가지 이상 반찬을 놓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지만, 불우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회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921년 왜관곡물상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인들의 횡포에 맞섰으며 두 아들의 독립운동은 물론, 중국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5년 대홍수로 기근이 발생하자 칠곡기근구제회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제에 힘썼으며 1929년 큰 가뭄으로 많은 빈민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준공된 가실성당은 영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성당이다. 그 당시 왜관에는 정재문 선생이 설립한 천주교 공소는 있었지만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큰 축일에는 왜관 신자들은 가실

성당에 가야 했다.

그는 가실성당 건립에도 기여했다. 그 공로로 그의 세례명이 성당 종에 새겨져 있다. 대구 교구 설정 100주년(2011)에는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성당 경내에 스승예수공원이 조성되고 큰 예수상이 세워졌다.

정재문 선생이 1928년 왜관에 세운 고딕 성당은 영남에서 대구 계산 주교좌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이다. 비록 공소에 건립하는 성당이지만 장래 큰 신앙공동체가 될 것을 예견하여 가실 성당보다 크게 지었으며, 그는 총회장이 되어 전국에서 이름난 모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당시 왜관 신자들은 정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모든 교회 활동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1936년 왜관 성당에 20대 남자들로 구성된 안드레아 청년회가 발족했다. 초대 회장은 4남 정행동 선생이었다. 그는 회장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재문 선생의 직계 후손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4명(건국훈장 2명, 국민훈장 2명) 있다.

### 백부 정행국(鄭行國, 1896-1921)

나의 백부 정행국 선생은 1896년 12월 24일생이며 천주교 세례명은 원선시오(요즘 말로는 빈첸시오)이다. 서울에서 송실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자, 1914년 8월 중국으로 건넌가, 쟈다오 지역과 지린성 창춘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5월 귀국, 왜관청년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고 동창학원(同昌學院)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1921년 10월 왜관청년회가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나의 조국은 죽지 않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같은 달 12일 순국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고 위패가 서울 독립관에 안치되었다.



정행국 선생 위패

안타깝게도 그의 사진은 없다. 그는 “나라 잃은 백성에게 사진이 무슨 소용 있으며 사진은 독립운동 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인 이복남(李福南 1896-1978) 여사는 남편이 순국한 후 왜관 성당 부인회장이 되어 신심단체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비신자 선교, 불우 이웃 돕기, 병자 간호 등에 가사를 제쳐놓고 앞장섰다. 정재문 총회장 집 만머느리이지만 부잣집 부녀다운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굶은일을 도맡아 하였다. 22세인 남편은 항일투쟁 사상범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몸이라 용현사, 통도사 등지로 피신생활을 하였지만 결국 구속되고 고문당하여 26세 젊은 나이에 병사하였다. 홀로 된 이복남 여사는 자신의 불운한 삶을 온전히 교회와 나라에 바쳐 전보다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82세에 별세하였다.

### 백부 정행본(鄭行本, 1899-1981)

백부 정행본 선생은 1899년 1월 9일 태어났으며 천주교 세례명은 요안이다. 대구 농림학교를 다녔다. 1928년 남일 정미소 전무가 되어 부친의 사업을 도우면서 왜관 성당 신축 공사를 감독하였고 성당에서 교리를 가르쳤으며 훗날 왜관 성당 총회장이 되어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행본 선생

왜관 성당의 초대부터 5대까지의 주임 신부는 프랑스인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어가 부족하고 한국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자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정행본 선생이 지혜롭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관청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교량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왜관 성당의 만능 해결사라는 평을 들었다.

1945년 정재문 선생을 위시한 왜관 성당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왜관 성당 주임 이명우 신부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정행본 선생이 부위원장이 되어 수고하였다. 그 공로로 1955년 8월 24일 순심교육재단 4대 이사장이 되고 1962년 교육공로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68년 칠곡문화원을 설립하여 초대원장을 지냈으며 다년간 칠곡군 여러 기관의 자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1981년 5월

22일 별세하였다. 부인 최조이(崔祖伊 1897-1981) 여사는 왜관 성당 부인회 간부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 부친 정행돈(鄭行敦, 1912-2003)

부친 정행돈 선생은 1912년 8월 22일 태어났으며 천주교 세례명은 미카엘이다. 1931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가인 만형 정행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독립운동에 투신, 항일 동맹 휴학을 주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정행돈 선생

1931년 5월 17일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자고등학교) 출신 최재경(崔在慶 1912-1999) 여사와 결혼한

후, 고향에서 만형이 설립한 동창학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창기, 이두석, 박몽득 등과 함께 왜관청년동지회를 조직, 독서회 명목의 비밀 결사 성진회(浬進會)를 통하여 농촌계몽과 한글 강습을 하다가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 1개월 동안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1941년 석방되어 소화여자학원 3대 원장인 부친의 교육 사업을 도왔으며

조국 광복 때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1945년 조국 광복 후, 왜관 신자들이 순심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상임 이사로서 토지 4,833평을 기부하고 1947년 문교부 교육공로상을 받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1주일 만인 7월 1일 순심중학교 5대 교장이 된 그는 1961년 7월 31일까지 만 11년 1개월 동안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고충을 참아 가며 학교 운영에 온 정성을 기울였으며, 1952년 순심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을 겸하였다. 1950년 12월 토지 7,140평을 자비로 매입, 창마묘지를 조성하여 왜관 성당에 기증하였고 1956년 왜관 삼청동 한센인 마을과 복지 시설 건립에 기여하였다.

1961년 8월 23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 순심교육재단 운영권을 이양하고 1961년 재건국민운동 칠곡군 회장에 추대되어 6년 동안 봉사하면서 칠곡군 여러 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1964년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무료 중등 교육 기관인 명성고등공민학교(明星高等公民學校)를 설립하여 3년 동안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90년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2003년 8월 19일 서거,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부인과 합장되었다.

## 선대가 뿌린 씨앗

### 소화여자학원(小花女子學院)

1930년대 왜관에 공립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왜관공립보통학교가 있었고, 사립학교는 동창학원이 있었으나 취학 연령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없었다. 왜관본당 제3대 주임 프랑스인 선교사 이동헌 신부는 1931년 부임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자, 1936년 5월 15일 왜관성당에 소화여자학원을 설립하여 이 지역 여성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창학원은 정재문 선생의 맏아들 정행국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이 중국 만주에서 5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9년 귀국하여 남자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주로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정재문 선생은 동창학원뿐만 아니라 소화여자학원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그는 1938년 소화여자학원의 교실 증축을 지원함으로써 소화여자학원 제3대 원장이 되었다. 정재문 선생의 4남 정행돈 선생은 만형의 유지를

받들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 1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되어 일본 경찰의 감시를 계속 받으면서도 부친의 교육 사업을 비밀히 도왔다.

### 순심교육재단(純心教育財團)

1945년 조국이 광복되자 왜관본당 제6대 주임 이명우 신부는 소화여자학원을 중학교로 승격시킬 것을 신자 유지들에게 제안했으며, 재단법인 순심교육재단은 정재문 선생을 비롯한 여러 신자들의 기부 재산을 기초로 하여 발족 되었다. 정하중 선생은 순심학교 창설의 공로자로 정재문 선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46년 왜관본당 회장이었던 정재문 선생은 슬하의 여러 자제들과 상의하여 토지 64,814평을 기부하여 학교재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재정적 후원을 마련한 뒤 이명우 신부와 신자들은 인가 신청 서류 작성 하나에도 여러 번의 침삭을 거치며 경북도청과 서울을 수차례 왕복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1946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순심교육재단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장에게 제출하여 1947년 6월 25일자로 인가를 받았다.

이명우 신부는 1946년 5월 1일부터 1948년 8월 1일까지 2년 3개월간 순심중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으며, 제2대 이태재 교장은 1948년 9월 1일부터 1949

년 9월 30일까지 1년 1개월 간, 제3대 김재석 교장은 1949년 10월 1일부터 1950년 1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4대 김익진 교장은 1950년 2월 1일부터 1950년 6월 3일까지 4개월간 교장을 지냈다. 4년 동안 4명의 교장이 바뀔 정도로 초창기 학교 사정은 순탄치 않았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1주일 후인 7월 1일에 제5대 정행돈 교장이 취임하였다. 정 교장은 1950년 7월 1일부터 1961년 7월 31일까지 만 11년 1개월 동안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고충을 참아 가며 학교 운영에 온 정성을 다 기울였던 인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분이였다. 정 교장은 이명우 신부와 함께 학교 창설 당시부터 학교 설립 기성회의 모든 사무를 주관하였고, 토지 4,833평을 기부하여 1947년 문교부 교육공로상을 받았으며, 설립 후에는 상무이사로 학교 살림을 관장하던 중 사정에 의해 1948년 잠시 학교를 떠났다가 학교가 위기에 처하자 1950년 7월 학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정 교장은 이후 교육 사업에 투신하여, 순심중고등학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2003년 8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영원한 라이벌, 전석재 몬시놀과 정행만 신부

전석재(全碩在 1916-1988) 신학생과 정행만(鄭行萬 1917-2004) 신학생은 신학교 동기생이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들이었고 신부가 되면 둘 다 외국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1916년 6월 10일생인 전석재 신학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동기생들보다 두 달 먼저 즉 1942년 3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라 학도병 징집을 피하려고 중도에 그만두고 귀국, 6개월 간 교구장 비서를 하다가 1946년부터 3년간 대건중학교 교장을 하고 1950년 효성여자중학교 교장을 했다.

효성(曉星), 즉 새벽은 새벽하늘의 별로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효성학교는 성모학교란 뜻이다. 대구가톨릭대 하양 교정 정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성모상이다. 그 성모상은 효성여자대학 때부터 있었다.

전석재 신부는 1952년 5월 15일 최덕홍 교구장의 허락을 받고 2년제 효성여자초급대학을 대구 대명동 2435번지의 옛 남산 성당 건물에서 시작, 초대

학장을 하다가 다음 해 4년제 효성여자대학으로 승격시켰다. 1956년 대구 봉덕동 1155번지로 대학을 이전, 198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그는 1981년 10월 몬시놀로 서임되었고, 1987년 10월 하양 교정으로 대학 이전을 완료하고 1988년 1월 7일 별세했다(향년 72세).

전석재 신부는 사제 서품 후 42년 간 교육자로만 지냈다. 내가 로마에 있을 때 그가 오셨기에 시내 안내를 해드렸다. 그가 경북대에서 명예 철학박사를 취득했을 때 나는 그의 환력기념 논문집(1976)에 “교회와 사회정의”라는 논문을 써드렸다.

효성여대와 가톨릭신학대가 통합하여 효성가톨릭대가 된 것은 1994년 이고 교명이 대구가톨릭대로 다시 변경된 것은 2000년이다.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 여자대학을 원하던 그가 일찍 별세하지 않았으면 통합이 가능했을까?

효성여대 약대 출신의 어느 동창회장은 효성여대를 이화여대, 숙명여대와 같은 최고의 명문 여자대학으로, 천주교 재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대학이라 엄격하고 철저한 학사 관리로 유명했다고 회상했다. 전석재 총장은 저승에서 이 말을 듣고 미소 지을 것이다.

1952년 초, 신학생 때부터 삼촌과 함께 왜관에 자주 놀러 왔었던 전석재 신부는 단짝 친구 정행만 신부를 대동하고 내 부모님을 찾아왔다.

“선생님, 여자대학을 설립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여자대학이 잘 되겠습니까?” 물었다.

“서울 한강 이남에서 제일가는 여자대학을 할 테니 돈과 학생만 있으면 됩니다. 대구교구에 토지가 좀 있고 교황청과 미국 천주교회의 도움이 좀 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성직자가 하는 일이라 부친께 말씀드려 기부하시도록 하고 자신도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구의 친지들 중에서도 기부할 만한 신자들을 물색해 드렸다. 어머니는 대구 출신이라 신자 동창생들을 찾아가 협력을 호소하여 상당한 돈과 딸들을 보내게 해드렸다. 그 공로로 내 부모님은 대구가톨릭대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흉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 집에서는 내 여동생 정죽규를 약대에 보냈고 내 사촌 누나 정영규는 딸 5명을 연차적으로 효성여대에 보냈다. 이유인 즉 효성여대가 가톨릭 이념에 입각한 현모양처 양성기관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1992년 어머니는 대구 주교좌성당 신자 이경애 씨가 하양 교정 성당 건축비를 기부하도록 했고 나는 한양대 건축과 유희준 교수를 설계사로 추천했다. 내 아버지께서 1953년 전석재 총장에게 안중근 의사의 딸 안현생이 대구에 피난 와 있음을 귀띔하셨기 때문에 전 총장이 그녀를 불문학 교수로 채용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3년밖에 재직하지 못했다.

전 총장은 하양 교정으로 대학 이전을 무사히 마치고 효성여대가 남녀 공학 종합대학으로 통합되기 전에 별세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아직도 하양 교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의 큰 동상이 박물관 앞에 우뚝 서 있고 효성여대의 상징인 성모상이 하양 교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내가 귀국하여 인사차 하양 교정에 들렀을 때 그는 총장실에 없었다. 정원

에 계실 거라고 해서 나와 살펴보니 밀짚모자를 쓴 일꾼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기에 총장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전 총장이어서 매우 놀랐다.

그 후 언젠가 또 만났을 때 25만여 평이나 되는 부지에 여러 단과대학 건물들이 들어선 것을 보고 나는 많이 놀랐다.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내 말에 전 총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 사람, 말 말게. 자네 삼촌 신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라며 되물었다.

“서양의 수도회 설립자 거의 모두 성인이 되었네. 자네 삼촌도 언젠가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공경하는 성인이 될 걸세. 수녀들이 자기들 수녀회 설립자를 성인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는데 하느님이 거절하지 못하실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전 총장은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전석재 문시놀과 정행만 신부는 사후에도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정행만 신학생은 서품 후 프랑스로 유학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교구가 재정난에 처하자 재정 문제에 밝고 믿을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 해서 교구장은 그를 비서 겸 총경리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 유학을 포기했다.

천주교 신학생들은 전액 장학생인데 정행만 신부는 부친 덕택에 신학교 생활비와 학비를 전액 부담한 첫 자비 신학생이었다. 그러니 교구에서는 그를 매우 신임했던 것이다. 정행만 신부는 1917년 11월 19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서 태어났으며 1942년 5월 30일 천주성삼 대축일 전날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천주성삼께 봉헌했다. 서품 전에 일본 트라피스트 봉쇄수도원을 견학했다가 그곳 생활에 매료되어 수도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한국에는 그런 수도원이 없어서 교구 신부가 되었다.

1943년 3월 1일 교구장 비서 겸 총경리가 되었다가 1945년 경주성당 주임으로 갔으며 1947년 다시 교구 총경리가 되고 효성초등학교 교장과 대건중학교 교장을 겸임했다. 그 후 상주 서문동 성당 주임이 되고 1950년 최덕홍 교구장의 허락으로 상주에서 수도회를 시작했으나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일시 중단했다. 1951년 상주에서 지원자 3명과 다시 수도회를 준비했으나 1952년 심장병을 얻어 1년 간 휴양하고 1953년 안동 목성동 성당 주임으로 갔다. 1962년 대구 동촌 성당 주임이 되어 대구 불로동에서 수도회를 시작하다가 또 병이 나서 중단하고 1971년 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의 초청으로 부산 광안리 성당 주임이 되었다.

1976년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의 초청으로 미리내 성당 주임과 미리내 성

지 관리자를 하면서 세 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1984년 교황청으로부터 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 설립 교령을 받았다. 1990년 자신도 수도자로서 종신 서원을 했다.

1991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설립 교령을 받고 2004년 6월 6일 천주성삼 대축일에 별세했다(향년 87세). 2016년 미리내 성요셉애덕수녀회 설립 교령은 그의 사후에 나왔다. 미리내 세 수도회 회원은 2022년 말 총 732명(남자 93명, 여자 639명)이다.

정행만 신부가 선종하자 많은 조문객이 미리내 골짜기를 찾았고, 얼마 되지 않아 미리내에 큰 '정행만 사제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의 강론집이 10여권 출판되었으며 그의 무덤에는 수도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전 총장 무덤을 찾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 한국 천주교회의 두 날개, 김수환 추기경과 김남수 주교



1953년 12월 내가 로마로 유학 갈 때 만주 연길교구 소속인 김남수(金南洙 1922-2002) 신부는 로마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했지만 연길로 갈 수 없어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스위스인 이성도 원장 밑에서 일하면서 경북대 철학과 시간강사를 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순심중학교 종교교사로 채용했으며 나중에 순심고등학교가 분리될 때 그에게 제2대 교장을 맡겼다. 그런 인연으로 그는 우리 집안과 매우 가까이 지냈으며 내 조부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삼촌 정행만 신부를 많이 도와드린 것 같다.

김남수 주교는 만주 연길에서 출생했으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수원으로 이사하여 수원중고를 졸업하고 함경남도 덕원신학교를 졸업 한 후 1948년 사제가 되었다. 그는 로마 우르바노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

는데, “한국에도 이런 라틴어 실력자가 있었나”며 교수들도 감탄했다고 한다. 1966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미사경본, 성무일도 등 라틴어 전례서를 많이 번역했다.

대체로 로마에서 수학한 성직자들은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주교회의 총무와 부의장을 지냈으며 1979년 한국외방선교회 총재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을 겸임했다. 주교회의에서는 중도 보수의 대표로 알려져 있었으며 교황의 교도권에 충실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1974년 내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출판국장으로 있을 때 그는 수원교구 제2대 교구장이 되었다. 수원 주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게 알려주었고 그 후에도 계속 나를 보살펴 주었다. 1981년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내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도 김 주교는 김 추기경과 함께 나를 지지해 주었다. 1990년 내가 로마에 다시 갈 때까지 주교회의의 사무총장을 3회 연임한 것도 이분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 주교는 신앙심이 매우 두텁고 영리한 분이였다. 내가 ‘사목’ 잡지 창간호에 오자가 두 개 있어서 밤을 새워가며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치고 있을 때 그는 고무가 달린 연필을 보이면서 “이 연필에 왜 고무가 달렸지?” 하고 물었다.

내가 멍하니 쳐다보자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 둔 거야.” 하고 웃었다. 그는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 주는 분이였다.

김수환(金壽煥 1922-2009) 추기경은 대구 출생으로 어릴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 슬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대구교구 신학생으로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징병으로 군대에 갔으며 해방 후 대구교구 사제로 서품되고 교구장 비서를 하다가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그가 독일 유학 중 로마에 왔을 때 안내한 적이 있다. 1966년 5월 31일 마산교구장 주교로 서품되고 1968년 5월 29일 서울대교구장이 되고 추기경이 되었다. 서울에 있다 보니 정치문제에 관여하게 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졌다. 보수적인 주교들은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일은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따름”이라고 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끔 “우리가 사무총장 잘 뽑았어.” 하면서 나를 지켜세웠는데 김 추기경도 인자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였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때 기념행사위원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김대건 성인의 무덤이 있는 미리내 성지로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김 추기경이 갑자기 소룩도로 바꾸게 했다.

김 추기경이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외딴섬 소룩도에 갇혀 있는 한센인들의 소외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준 분이다. 김 추기경은 자기가 대구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어릴 때 너무 여러 곳을 전전했기 때문에 고향이 없다는 말을 했다.

김 추기경은 어머니가 선산 읍내 공터 구석에서 국화빵을 구워 팔거나 군위에서 옹기그릇 팔러 다닌 것을 기억했다.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안 된 신학교에서 양말 없이 지낸 학생은 자기뿐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 추기경은 가

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추기경이 된 후에도 축일과 명절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 미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다.

김 추기경의 형 김동한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는 안전한 색시를 만나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면서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신부 되라고 해서 결혼을 단념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동한 신부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라 훗날 대구대교구 사회복지사업의 대부가 되었다.

2023년 서울대교구가 김 추기경을 시복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나는 김 추기경이 속히 복자가 되길 바란다.

나는 김수환 추기경과 김남수 주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두 분 다 착하게 살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라 그분들 밑에서 재미있게 일했다. 두 분은 주교회의 상임위원을 오랫동안 했다. 상임위원회는 총회와 달리 수시로 열리는데 때로는 심각하게 토론하는 일이 있었다. 김 추기경은 주교회의 의장이지만 중도 진보의 대표격이었고, 김 주교는 주교회의 총무이지만 중도 보수 의 대표격이었다.

그러나 항상 원만히 해결되었다. 두 분은 한국 주교회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두 분은 한국천주교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였다. 나는 사무총장으로서 이분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내게는 영광된 시간들이었다.

## 왜관성당 신자들의 축사

福되도다 一九六〇年 十二月 二十一日이여. 이날 極東 韓國 出身의 알뜰한 青年 副祭는 멀리 南歐의 聖都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代理하는 榮光의 職位 永遠한 司祭로 敍品되시도다. 이 어떠한 幸福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며 무엇으로써 天主께 감사하오리까. 새 신부님의 故鄉 倭館本堂의 교우들은 절로 어깨가 으쓱하고 흐뭇한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아쉽게도 水陸累萬里를 相距한지라 신부님의 父母親戚과 故國親知들이 이 聖典에 參與치 못함이 서운하오나 心靈이 相通하는 우리의 뜨거운 祈求는 距離를 超越하여 신부님께로 전달될 것을 확신하옵니다. 神父님은 신부님이 留學 中에 사랑하는 孫子를 그리면서 歸天하신 祖父母님께서 일찍이 이룩하신 倭館教會의 터전을 背景으로한 信仰의 名門에서 태어나 青年志士의 氣概높으신 父親과 知德賢淑하신 慈堂의 사랑 가운데 信德의 搖籃에서 자라셨습니다. 여기에 神父님의 天稟은 溫健重厚하시고 才質은 秀逸明敏하사 어려서부터 各級學校에서 拔群의 成績을 나타내셨고 天主님의 聖召를 느끼시고는 故 崔主教님의 두터

운 囑望으로 로마留學의 壯途에 오르신지 於焉八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異域萬里 生소한 客窓에서 氣候風土와 言語習慣이 判異한 環境의 惡條件을 克服하면서 哲學 神學의 어려운 課程을 닦으시고 司祭로서의 聖德修鍊과 靈界指導者로서의 力量蓄積에 寧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積功의 보람 있어 오늘 布教聖省長官 아가지아니안 樞機卿으로부터 神品聖事を 받으신 神父님은 實로 우리 倭館教會의 자랑이시고 大邱教區의 新進士요 나아가서 全가톨릭교회에 寄與할 期待에 찬 青年司祭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새 신부님 靈肉間의 健勝聖化를 빌며 새時代의 指導者로서 明察과 情熱과 推進의 果敢性을 發揮하시는 先鋒이 되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秋收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韓國처럼 切實한 例는 드물 것입니다. 三千萬同胞의 三分之一이 共產惡魔의 奴隸로서 呻吟하고 있으며 自由大韓의 二千萬同胞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眞理를 알아 믿는 이 不過 五十萬에 未達할뿐 政治의 腐敗 經濟의 痲痺 思想의 混亂으로 마치 罪惡의 도가니에서 들끓는 듯한 無數한 우리겨레의 靈性을 어떻게 教誨하며 무엇으로써 是正하오리까. 平面이던 人間世界가 立體宇宙로 飛躍하는 超現代的 宇宙科學도 人類의 福利增進을 爲함보다는 地球의 破滅을 促進하는데로 惡用한다면 어찌 天主님의 咀呪를 免하오리까. 이러한 同胞와 人類의 救靈事業을 責任지신 神父님은 오늘의 敍品이 俗世的 榮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하기 爲하여 生命을 바치신 聖베드로以下 사도들과 二千年동안 모든 聖職者들이 겪으신바와 같은 苦難과 犧牲의 超自然的 榮光이라 하겠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되다. 나 너를 사랑하는 줄 너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이나 되풀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시몬 鄭神父님을 激勵하시는 뜻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羊을 치라」天國의 牧者를 代理하는 地上的 牧者 그 職位가 尊貴하고 그 수효가 적을수록 牧者의 位置는 크고 羊들의 期待는 말할 수 없이 부풀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神父님 마음껏 배우시고 많이 보시고 널리 들으시고 餘恨이 없도록 準備하여 錦衣還國하시 고는 로마의 識見과 韓國의 現實을 綜合勘案하시어 新世代에 알맞은 傳教方 式으로 눈부신 活躍이 있으시기를 苦待하옵니다. 우리 倭館 교우들은 神父 님을 爲하여 바쳐지는 二十一日과 二十二日의 이곳 미사에 참여하여 신부님 영육간의 萬福을 빌어드리으며 聖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신부님의 화 려한 첫 미사 光景을 목상하면서 以上の 燕辭로써 祝辭에 代하옵니다.

一九六十年 十二月 二十一日 신부님의 고향 왜관 교우 일동 올림.

## 사제교양지 '사목(司牧)' 창간사

정은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차장)

바야흐로 우리는 다 같이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평소의 뜻을 모아 보람 있 는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막을 내린 지 한 해가 조 금 지난 오늘, 가톨릭교회는 마치 대규모의 한 작업장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해졌습니다.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전 교회는 세계 어디서나 현대화를 위한 쇄신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황 및 주교들의 획 기적인 용단과 현명한 지도 아래 현대 세계와 대결하여 교회의 새롭고 바른 길을 개척하려는 창의력과 신선한 생명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회 쇄신운동에 있어서 세계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한국 교회도, 우 리 한국 교유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공의회 정신을 실천 에 옮기는 데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의회회의 헌장, 교령, 선언문을 연구하여 조속히 실천하려는 태도는, 다소 무기력하고 침체된 인상

을 주던 한국 교회가 이번 공의회를 기해서 쇄신에의 일보를 내디딘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를 기하여 우리들의 다년간의 숙원이던 한국 가톨릭 성직자 잡지를 '사목'이란 이름으로 창간하게 됨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 일치 협력하여 각자가 처해 있는 분야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연구결과를 집필함으로써, 이 잡지가 명실공히 한국 성직자들의 참다운 '대화와 연구의 공동광장'이 되어 사목활동과 한국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성심껏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잡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가꾸고 함께 키워 알찬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이 한 곳에 부어야 하겠습니다.

Veritatem facientes in charitate, crescamos in illo per omnia qui est caput Christus. (Ephes. 4,15)

1967년 5월 1일.

## 神學雜誌 展望 創刊辭

鄭 銀 圭

第二次 바티칸公議會를 계기로 교회가 急先務요 重大課業인 교회의 現代化와 土着化를 전 분야에 걸쳐 착수 시행하고 있음은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흐뭇한 일이다. 그 成果는 이미 典禮의 쇄신과 그리스도교 一致運動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톨릭神學 역시 그 視野를 과감하게 넓혀가고 있다. 한 말로 全教會는 閉鎖된 社會에서 開放된 社會로의 移行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교회가 어딘지 모르게 現實世界와 遊離되고 現實에 무관심 내지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왔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이 만인을 위한 보편적인 것이라면 교회는 현대세계와 共存하며 전 인류의 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傾聽해야 하며 적극적인 對話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산 누룩으로서 現實의 社會 속에서 그 內部로부터 생활케 하고 왕성케 하며 聖化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사회 안

에 침투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現代社會의 요구에 응하려면 사회와 함께 괴로워하고, 自己批判을 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교회는 現代化와 土着化에 전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가 閉鎖된 社會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리스도교 內部에서 대립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世俗主義의이며 無神論的 社會가 障礙物이 되고 있으며 또 宗教를 멸시하는 풍조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 사회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종교가 주도권을 장악하던 시대는 이미 過去之事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역사를 개관하여 보면 現代의 이러한 世俗化 現象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과히 놀라거나 실망할 것도 없다. 歷史家들은 어느 문명이든 초기에는 종교를 基盤으로 형성되나 중기가 지나면 世俗化 現象이 나타나면서 종교적 가치가 퇴색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世俗化 現象도 절대로 不變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엔 반드시 人間性의 不在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徵候는 現代世界의 도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人間性不在의 現代世界를 治癒하는 최상의 치료제이다. 그러나 약의 효력이나 역효력이란 그 용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병상을 잘 파악하고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急先務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먼저 謙遜한 태도로 現代社會의 고민을 傾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대응한 現代神學의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現代神學은 확고한 전통에 굳건하게 基底되어야 하며 동시에 現代潮流에 민감하여 보다 친근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즉 現代의 哲學, 自然科學, 社會

學, 心理學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宇宙論的 次元에서 歷史神學의 안목으로 現代世界라는 歷史的 時空을 直視, 觀察해야 할 것이다. 현대는 급진적인 발달 속에서 학문이 專門化하고 細分化됨에 따라 分化된 각 분야를 연결, 종합하는 것은 神學이 담당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망각해선 안 된다. 그리고 흔히 神學研究가 빠지기 쉬운 思辨的 高踏性 내지 觀念的 遊戲속에 떨어지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現實에 참여하여 오늘의 諸問題에 對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와 대화하는 神學을 構築해야 한다. 이것은 現代가 그리스도교神學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는 현대세계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지 과감히 探究하며 精進하는 姿勢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본 대학 신학도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지로서 '展望'을 창간하게 됨은 그 意義가 자못 크다고 생각된다. 이 雜誌의 본 의도대로 우리 신학도들의 참다운 '對話와 研究의 共同廣場'이 되어 現代神學의 動向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나라 精神風土에 깊이 뿌리박아야 할, 소위 神學思想의 土着化를 모색하는 데 다소나마 공헌이 된다면 다행이겠으며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갈망하는 바이다.

독자들의 성원을 촉구하는 뜻에서 본지의 취지를 간단히 披瀝하면, 첫째, 현대의 저명한 神學者의 最良記事를 선정해서 보다 더 容易하고 선명한 소개를 시도하며 번역자의 자기소화에서 나온 創意를 최대 활용해서 抄譯, 意譯하여 神學思想의 土着化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둘째, 神學思想외에 哲學, 文學, 社會學 등 諸問題에 관해서도 좋은 記事가 있으면 소개하며, 셋째, 神學思想에 관한 본 대학 신학도들의 공동연구, 토의결과, 독창적 연구논문도 가

급적 수록하려고 한다.

따라서 독자 측에서도 후진을 격려하는 뜻에서 자진하여 기사의 선정, 번역, 연구발표 등으로 지원해 주시고 학생들의 능력과 시간에 베푼 본 활동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주시기 바라며, 研究途程에 있는 신학도들의 공동 작업이니 만치 미숙한 점이 많을 터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鞭撻과 是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1968년 12월 1일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창간사

정은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 쇄신과 민족 복음화를 대전제로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 대대적인 적극 홍보가 요청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홍보의 미흡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를 펴나가기 위해 우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를 발간하는 바입니다. 주교회의와 주교위원회는 물론 주교회의 사무처, 주교회의 산하 전국 기구 및 전국 단체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200주년 기념 전반에 관한 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어느 나라의 주교회의든 그 사무처가 주교회의 자체를 비롯 그 산하 기관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종합 보고하는 고유의 매체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기관지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지고 있으나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주교회의 및 주교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제 단체 활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회보의 발간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기능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즉 교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14개 교구는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구 간의 협력이 요청되는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 주교들로 주교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와 그 사무처가 곧 사단법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입니다. 주교회의 자체가 협의체이므로 그 사무처 또한 중앙 집권 기구가 아니며, 교구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교회, 나아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 관계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국 천주교회의 대 정부, 대 사회 창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교회의는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열며, 상임위원회는 총회를 준비하고 필요, 긴급 시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회 안에는 교리, 성직, 사목, 사회 등 상설 주교위원회의가 있어 관계 분야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며 그 산하 전국 위원회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주년 기념 준비를 위해서는 특별 주교위원회로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가 있어 주교 총회를 대신하여 200주년 기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도, 감독합니다. 그 업무의 비중을

보아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는 주교회의의 사무처에 200주년 기념에 관한 중앙 실무 기구로서의 책임까지 맡긴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본당 등을 통하여 직접 교구에 소속되는 것이지만, 주교회의가 한국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만큼 그 실무를 책임진 주교회의의 사무처의 활동 및 운영과 절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200주년 기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적어도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전체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익혀두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중앙 기구의 종합 보고서 형식의 회보를 기획한 것입니다. 200주년을 계기로 '이 땅에 빛을' 보다 널리 비추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시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12월 1일

## 정은규 몬시뇰에 대하여

### 박정일 주교(전 천주교 마산교구장)

독신인 천주교 사제가 별세했을 때 교구에서 제일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 사제의 개인 사진들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정은규 몬시뇰은 지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신변 정리를 시작했으며 자기 사진을 전부 소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자 친척들이 사진 일부를 골라 '사진집'을 만들어 나누어 갖겠다면서 평소 정 몬시뇰과 가까이 지낸 내게 '인사말'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에 기꺼이 응했다.

내가 로마 우르바노신학원에 입학한 것은 1952년이다. 정 몬시뇰은 1953년 연말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음 해 신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나보다 2년 후에 사제가 되었다. 세계 각지의 신학생들이 교황님 가까이에서 훌륭한 교수들의 지도 아래 공부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귀국 후, 우리는 교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으나 정 몬시뇰

이 한국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일하게 되고 내가 주교가 되면서부터 다시 자주 만나게 되었다. 정 몬시뇰은 사제들 대부분이 원하는 본당 사목을 해 보지 못하고, 4년간 신학대학 교수 생활을 했을 뿐, 주교들이 시키는 대로 줄곧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일하거나 로마에서 한국 교회와 교황청을 위해 일했다. 그는 주교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교회의 사무처와 주교들을 위한 숙소를 건축해 냈다. 주교회의 총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던 때라 그 건물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때는 교황 영접을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의 실무를 잘 해 냈다. 그래서인지 3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세 번이나 했다.

그 후, 그는 로마에 파견되어 온갖 악조건 아래서 한인신학원과 한국 성당을 건축했으며 '한국 순교 성인 광장'을 마련, 로마시 지도에 등재함으로써 국위 선양에도 기여했다. 로마 한인신학원 설립은 전교 지역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큰 경사였기에 나는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로마에는 40여 국가의 교회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신학원을 설립하여 젊은 신부들을 교황청립 대학교에 유학시키고 있다. 한인신학원은 한국 신부들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 주교회의 로마 연락사무소 겸 한국 교회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속 성당은 로마 한인 신자들의 사목적 중심점이 되고 있다.

정 몬시뇰의 선친은 애국지사요 교육자였다. 정 몬시뇰은 선친의 유덕을 본받아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애국지사 추모 사업을 하고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격려했다. 신학생 시절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

정 몬시뇰의 조부도 교육 공로자요 자선가로 알려져 있다. 대를 이어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유명한 집안임에 틀림없다.

아무쪼록 정 몬시뇰의 여생이 행복하길 바라며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빈다.

2019년 11월 10일



## 나의 유언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저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바칩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성부의 선하심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제 인생행로의 형과 벗이 되어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당신 빛으로 언제나 제 영혼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낳아 기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주신 저의 부모님,

제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주님 은총의 생명을 받게 해준 대구 계산동 성당,

제 사제성소를 싹트게 해준 왜관 성당, 제 사제성소가 성장하게 해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부속 우르바노신학원과 대구대교구를 감사의 정으로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제직에 부르시어, 한국 주교회의의 사무총장,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위원,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으로서 한국 주교회의와 교황청과 교황님께 봉사하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교황님께 자녀다운 순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한국 주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떤 모양으로 당신 대전에 불러 가실지 모르겠사오나,

찰나와 같은 현세 생활과 완전히 이별하는 죽음을 앞두고,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 불충하고 설사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웃 형제들에게 잘못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는 데에 미력이나마 바치기를 갈망합니다.

저의 장례는 교회 관습에 따르되, 극히 간소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며,

대구대교구 남산동 성직자 묘지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대구대교구에 귀속될

저의 소유 재산 전부 '시몬장학회'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에 바치며,

루르드와 파티마의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 드립니다.

모든 친척 친지들에게 주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빌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2019년 10월 28일, 성 시몬 사도 축일,

대구대교구 바오로관에서 정은규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ISBN 979-11-85641-50-8  
펴낸곳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출판등록 1974년 9월 27일(제2호)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화 053-850-3262  
팩스 053-359-7450  
지은이 정은규  
디자인/제작 한국애드  
발행일 2024. 2. 29